

연구보고 03-03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 SIS) 대응방안 연구

2003. 2

서보현/김상배/황주성/최선희/김현주/백지원

서 언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는 UN 산하 ITU의 주관하에 제1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WSIS는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보화 분야의 글로벌질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보화전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IT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글로벌 정보경제(global information economy)'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지원하는 외교적 활동으로서 이해되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진전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전략의 양상은 경쟁을 넘어서 협력을, 또는 적어도 협력을 통한 경쟁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정보화를 둘러싼 초기의 양상이 전통적으로 상정되어온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의 '원초적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협력의 문제를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정보화를 둘러싼 양상은 경쟁의 이미지에 국가간, 또는 기업간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적 이미지'가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 관련 외교의 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 이슈의 보속적 의미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의 외교적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WSIS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디지털외교(digital diplomacy)의 문제가 정보화전략의 새로운 축으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보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공은 글로벌화의 맥락에서 음미되지 않고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글로벌화의 동학에 대한 이해도 정보화라는 변수에 대한 철저한 고려없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만나는 21세기초의 길목에서 WSIS와 글로벌 정보사회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WSIS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정보화전략 또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글로벌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전략과 이러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그러한 준비작업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윤 창 번

요 약 문

1. 제 목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 SIS) 대응방안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2003년 12월과 2005년에 각각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장으로서 정보사회와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의이다. 본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사회에 관한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정보화의 규범제정자로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몇몇 주요 국가나, 지역협력체, 혹은 정보통신 전문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UN의 후원하에 개최될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 SIS)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수반, UN기구, 민간부문, NGO 등 광범위한 참가자들을 통해 정보사회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범세계적인 정보화 규범 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WSIS에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규범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대비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히 WSIS라는 ‘국제회의에의 참가전략’을 넘어서는 정보화 분야의 총체적인 미래전략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정보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입체적인 구도 하에서 WSIS에 대한 참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정책관련 주무부서 및 유관전문기관과 협의하에 연구방향을 수립 후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WSIS 준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활용하여 의제 분석 및 관련 추가 정보를 습득하였다.

한편 WSIS 사무국, ITU 사무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WSIS 준비회의, ITU 주요회의 및 기타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동향 및 의제개발관련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하여 최신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포함된다.

기존의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가 미래상으로서 정보사회를 다룬 것이라면 WSIS에서 다루게 될 정보사회는 현재 구현되고 있는 정보사회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세계정상 등이 공동의제로 다루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므로 각국 및 시민사회 등이 요구하는 의제를 분석하고, 한국적 의제발굴을 목적으로 1)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 확보, 2) 인적자원 개발 및 접근권 확대, 3)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4) 기술이전 및 표준화, 5) 응용 및 콘텐츠 관련 이슈, 6) 거버넌스 정책틀, 법제도 등 6가지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크게 WSIS 자체의 준비과정에 대한 추이 파악과 WSIS에서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의제의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SIS의 기본적인 개요와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WSIS의 개최의의는 정보사회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세계 정상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정보화 분야에서 열리게 되는 최초의 정상급회담이란 점이다. WSIS는 ITU 이사회에서 개최를 승인하였고, 그 추진체계는 ITU의 주도적인 준비하에 UN 사무총장의 후원하고 있다. 또한 UN 관련 기구와 UN ICT Task Force의 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타 정부간 기구, 국제 및 지역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 NGO들이 WSIS 정부간 준비절차와 정상회담 자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되었다. WSIS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정	분 류	내 용
2002. 5. 28~30	지역회의	아프리카회의, 말리(바마코)
2002. 7. 1~ 5	1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2. 9. 9~11	보조지역회의	독립국가연합차원의 비스켓-모스크바회의, 1차 키르기스탄(비스켓)
2002. 9. 16~18	비공식회의	컨텐츠와 주제관련회의, 스위스(제네바)
2002. 10. 21~25	보조지역회의	비스켓-모스크바회의, 2차 러시아(모스크바)
2002. 11. 7~ 9	지역회의	범유럽회의, 루마니아(부카레스트)
2003. 1. 13~15	지역회의	아시아태평양회의, 일본(도쿄)
2003. 1. 29~31	지역회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회의, 도미니카(바바로)
2003. 2. 4~ 6	준비회의	서아시아지역, 레바논(베이루트)
2003. 2. 17~ 28	2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3. 6 예정	지역회의	아랍연합, 이집트(카이로)
2003. 9. 15~ 26예정	3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3. 12. 10~ 12예정	1차 WSIS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개최
2005년	2차 WSIS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개최

WSIS의 준비과정은 크게 국제기구 차원, 시민사회, 민간부문, 지역 차원의 추진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UN 총회가 WSIS 개최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 과정으로부터 UN체제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UN 체제 내의 전문기구들이 WSIS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WSIS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U는 HLSOC(고위급 정상회의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었는데, HLSOC는 UN사무총장 등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UN 전문기구, WTO, UNITAR,

UN지역경제위원회 등의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기구간 의견조정 및 자문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무국은 업무진행보고 및 지원을 수행한다. WSIS와 관련하여 기존의 UN ICT Task Force, G8 DOT Force 등과 같이 이미 시작된 주요 이니셔티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ITU는 UN ICT Task Force, G8, 타 국제기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WSIS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을 맺기 위해 노력중이다.

시민사회는 CRIS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조정그룹을 통해 활동중이며, CRIS는 정상회담 개최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WSIS를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UNESCO와 연계하여 각종 기고문 작성 및 의제 선정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나 시민사회에 비해 아직 조직화된 의견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UN 총회나 유럽지역회의 등에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등 WSIS 관련 회의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차원에서는 세계의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준비회의의 개최로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프리카, 범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서아시아 지역의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공동의제 발굴 및 전략수립에 공동노력을 꾀하고 있다.

WSIS 진행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SIS의 의제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적 이해와 그를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WSIS의 배경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슈들이 추가되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제까지의 국제적 협력과정과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모든 참여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WSIS의 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보여지는 갈등 구조는 크게 정보화 선진국 대 개

발도상국, 국가 정부 대 시민사회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정보화가 현실의 일부가 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보사회와 연관되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등의 이슈, ICT의 활성화 등 ICT 기반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슈에 대한 논의와 같은 포괄적인 주제 영역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화가 여전히 미래의 일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ICT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지원들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정부는 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물질적 기반 확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들은 대체로 인권적 측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적 콘텐츠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 콘텐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WSIS에 주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현재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대체로 민간 부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WSIS에 참여하고 있다. ITU, UNCTAD, UNEP, ILO 등의 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TSO와 같은 특정 영역의 국제기구들은 보다 전문적인 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의제에 대한 지역적 편차는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편차와 다소 유사하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지역별 준비회의를 통해 세계의 각 지역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적 요구가 반영된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 국제 논의 과정에서 입장 정립이 매우 힘든 위치에 있다. WSIS의 주제로 언급되는 의제들을 살펴보면, 의제별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입지의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 대체로 한국은 국내적 정보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글로벌 정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국가전략으로 연계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WSIS는 한국의 정보화를 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국가전략을 도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WSIS를 대비한 단기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3년 12월로 예정된 WSIS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준비작업의 진행을 위해서 새 정부는 1) WSIS 실무반 운영 및 WSIS웹 사이트의 구축, 2) WSIS 의제의 체계적 연구, 3)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기반의 마련 등을 포함하는 차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2003년 WSIS 이후의 2005년 제2차 WSIS 대응전략 및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1) 디지털외교의 인프라의 정비, 2) 디지털외교의 한국적 의제 발굴, 3) 디지털외교의 추진주체 정비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작업을 체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디지털외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주로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정보통신망의 정비나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 등에 글로벌 정보사회로의 지향성을 가미함으로써 한국의 정보화가 대외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외교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내차원 중심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외지향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지난 십여 년간 진행해온 국내외 정보화전략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5. 정책적 활용내용

정책적으로는 WSIS 준비회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WSIS 개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여 회의시 능동적으로 기고함으로써 WSIS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하여 ITU 및 유관 정보통신 국제기구에서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경제·사회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비전 공유를 통한 세계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정보격차 해소를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 국제협력의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정상급의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SUMMARY

1. Title

“A study for the preparation of the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report was prepared to present Korea's policy perspectives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 SIS) that will be held in 2003 and 2005. In particular, in order to develop interest toward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policy issues related to informatisation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in issues facing the new government of 2003.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amine Korea's initiativ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o narrow the gap in the digital divide.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not only raise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arena but also to explore the policy program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omestic IT industry.

3.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Based on the overall summary of WSIS,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process for the WSIS in terms of regional conferences,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ITU.

In addition, a focused analysis will be conducted centered on preparatory meetings by each region, private enterprises, civil groups as well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

zations to examine the basic direction of themes that will be discussed at WSIS.

The report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Section 1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in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information order for the WSIS.

Section 2 examines the preparatory process as outlined in WSIS. After examining the process and themes for WSIS, the preparatory process is organized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private sector and regions. The preparatory process of WSIS is based on a 3-way partnership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preparatory meetings in each region by way of informal meetings and Preparatory Committees, detailed agendas and them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through discussions.

Section 3 examines and analyzes the agenda of WSIS. The views of various participants regarding the declarations and action plans of WSIS are organized. Then,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are derived concerning the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o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view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s will be first examined, then differences of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based on development stage will be noted. In addition, major issues of WSIS proposed by civil groups and the private sector, as important participan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re examined.

Section 4 examines the strategies of WSIS. This section presents the major differences of Korea's views and the contents of the domestic action plan of WSIS. Activities of the domestic working group and formation of the policy research network are recommended in detail. Korea's position can be established through 6 main agendas: (1) ensure the construction of basic facilities and connectivity (2) exp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access rights (3)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information protection and environment) (4) technology transfer and standardization (5) application and contents issues (6) governance, policy frameworks, regulations and laws.

Section 5 briefly summarizes the main points of the report and presents 3 main points

that should be noted from the preparatory process of WSIS in 2003 that includes (1) systemizing WSIS working group activiti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the WSIS preparatory conference and operation of WSIS webpage (2) building WSIS policy research network to study Korea's position through the proposals for WSIS preparatory process (3) holding civic forums on the vis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WSIS. In addition, necessary mid to long term tasks were recommended for a broader perspective on the global informatisation strategy for the WSIS 2003.

4. Research Results

Short term Action Plan

Korea plans to promote the digital diplomacy strategy by taking part in the shaping the new global order of the informatisation field through the WSIS preparatory process. In particular, to prepare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scheduled WSIS in December 2003, the new government will establish a policy basic direction focusing on the following initiatives to (1) operate a WSIS working group and build the WSIS website (2) systematic study of the agenda and themes of WSIS; (3) prepare for the social response to the WSIS.

Long-term Action Plan

Currently, there are three areas that are part of the preparatory work, which will be in progress to build a response strategy for the 2nd WSIS in 2005 and for the long-term global informatisation: (1) improve the digital diplomacy infrastructure (2) present Korea's agenda for digital diplomacy (3) prepare issues and agenda for digital diplomacy.

First, in terms of building a physical foundation for digital diplomacy, Korea will establish the foundation necessary to ensure that Korea's informatisation efforts are spread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such as the digitali-

zation industry and improvements in the information networks, which has thus far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II).

Second, is to develop Korea's agenda corresponding to Korea's national position in the informatisation sphere and to continue efforts in strengthening the research network for researchers in the systematic study of the network.

Finally, up to now, there has been a domestic orientation for the informatisation system but now a more international direction needs to be added in terms of setting up a digital diplomacy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transform into a global information society, Korea needs to develop a comprehensive informatisation strategy by gathering various information strateg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at have been applied in the past 10 year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o prepare for the WSIS Preparatory Committees, Korea needs to confirm its leading position and actively contribute to the meetings by presenting Korea's agendas so that Korea will be able to lead the discussions at WSIS. In addition, this will also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ITU.

6. Expectations

Contributing to closing the global digital divide by sharing Korea's experiences and vision regarding economic and social informatisation efforts can accelerate efforts that will help close the digital divide in Korea.

In conclusion, this report serves as a useful policy guid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s well as a reference for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the global arena.

목 차

서 언	1
요약문	3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WSIS와 글로벌 정보질서의 태동	21
제 2 절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모색	22
제 3 절 본 보고서의 구성	26
제 2 장 WSIS의 개요와 준비과정	28
제 1 절 WSIS의 개관	28
1. WSIS의 기본개요	28
2. WSIS의 추진절차와 참여주체	31
제 2 절 WSIS의 준비과정	33
1. 국제기구 차원의 추진과정	33
2. 시민사회 차원의 추진과정	42
3. 민간부문 차원의 추진과정	45
4. 지역차원의 추진과정	47
제 3 절 WSIS 준비과정의 특징	50
제 3 장 WSIS의 의제	53
제 1 절 WSIS 의제의 기본성격	53
제 2 절 WSIS 의제에 대한 입장	57
1. 국가 및 국제기구	57
2. 시민사회단체	71
3. 민간 기업 부문	76

4. 지역별 준비회의	78
제 3 절 WSIS 의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	85
제 4 장 WSIS 대응방안의 모색	89
제 1 절 국내의 WSIS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	89
1. WSIS 실무준비반의 활동	89
2. 정책연구네트워크의 형성	90
3. WSIS 국민포럼의 개최	94
제 2 절 WSIS의 주요쟁점과 한국의 위상설정 및 한국적 의제발굴	95
1.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 확보	95
2. 인적자원개발 및 접근권 확대	96
3.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97
4. 기술이전 및 표준화	99
5. 응용 및 콘텐츠 관련 이슈	100
6. 정책·제도·규범의 정비	101
제 5 장 결 론	104
제 1 절 WSIS 준비작업의 방향	104
제 2 절 향후 중장기적 추진과제	106
본문 약어풀이	109
참고문헌	111

Contents

Section I Introduction	21
1. WSIS and Establishing Global Information Order	21
2. Developing a Global Informatisation Strategy	22
3. Overview of Study Contents	26
Section II WSIS Preparatory Process and Themes	28
1. Overview of WSIS	28
2. Preparatory Process of WSIS	33
3. Features of WSIS Preparatory Process	50
Section III WSIS Agenda	53
1. Basic Themes in WSIS Agenda	53
2. Position on WSIS Agenda	57
3. WSIS Agenda Issues	85
Section IV Developing Programs in Response to WSIS	89
1. Domestic Plan following the preparatory process of WSIS	89
2. Major Points of Issue, Establishing Korea's Position and Agenda	95
Section V Conclusion	104
1. Direction of WSIS Preparatory Efforts	104
2. Mid to Long-term Tasks	106
Abbreviation Key	109
Reference	111

표 목 차

〈표 2-1〉 WSIS 관련 회의 일정표	31
〈표 2-2〉 지역회의 일정	47
〈표 3-1〉 1차 PrepCom 비공식 회의 결과 중 WSIS 원칙	54
〈표 3-2〉 1차 PrepCom 비공식 회의 결과 중 주제	55
〈표 3-3〉 WSIS 의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	60
〈표 3-4〉 WSIS 원칙선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	60
〈표 3-5〉 WSIS 의제에 대한 ILO의 제안	70
〈표 3-6〉 WSIS 의제에 대한 아프리카지역의 제안	79
〈표 3-7〉 e-전략을 위한 원칙	80
〈표 3-8〉 바바로 선언문 中 기본 원칙	82
〈표 4-1〉 의제별 분과 연구대상(예시)	93

그림 목 차

[그림 2-1] WSIS의 조직도	36
[그림 2-2] WSIS 회의 프로세스	38
[그림 4-1] 의제분석위원회 구성도(안)	9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WSIS와 글로벌 정보질서의 태동

2003년 출범한 새 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보화 부문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1년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UN회원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국제협력의 방안을 논의하는 WSIS를 200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로 개최할 것이며, 2005년에는 튀니지에서 제2차 WSIS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02년 7월 1일부터 5일에 걸쳐서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 WSIS에 대한 준비작업을 위해 '제1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 1, 이하 PrepCom-1)'가 열렸다. PrepCom-1에서는 2003년의 제네바 정상회의와 관련된 진행절차와 기본원칙 및 의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PrepCom-1에서는 WSIS의 주제 및 의제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정보화 관련 개발문제나 민간부문의 참여 범위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가 개선되는 가운데 회원국들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2년 9월 16~18일에는 제1차 준비회의에서 미진했던 WSIS의 의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비공식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2년 9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모로코의 말라케쉬에서 열린 ITU 전권위원회에서도 WSIS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ITU 전권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특히 ITU 차원에서 WSIS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 2) 정보기술을 통한 개발목표(development goals)의 달성, 3)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와

보안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WSIS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WSIS의 준비과정은 2003년 2월 17~28일의 '제2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pCom-2),' 2003년 9월의 '제3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pCom-3)' 등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WSIS의 준비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선 WSIS가 정보화만을 단일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 있다. UN 산하의 ITU가 주관하여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미래를 놓고 논의를 벌인다는 점에서 세계인의 삶 속에 정보화가 벌써 커다란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WSIS의 준비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보화 분야의 글로벌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세기말 서구세력에 대한 개항 이후의 국제적 구조변동이나 20세기말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변동에 비견될 수도 있을, 새로운 21세기의 국제적 구조변동이 WSIS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히 WSIS라는 '국제회의에의 참가전략'을 넘어서는 '정보화 분야의 총체적인 미래전략'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정보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입체적인 구도 하에서 WSIS에 대한 참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 2 절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모색

WSIS의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이 모색해야 할 글로벌 정보화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정보화전략은 세계질서 변동을 대변하는 두 개의 키워드인 '정보화(informatization)'와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대응하는 미래국가전략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시대를 향한 정보화전략'의 측면과

‘정보화분야의 글로벌 외교전략’의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화 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정보화전략은 여태까지는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구상되고 진행되어온 정보화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의 정보화전략’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외교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정보화전략은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선진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한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투영하려는 ‘디지털시대의 외교전략’ 또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의미한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정보화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은 그 정보화의 수준에 걸맞은 국제적 정보화전략의 노력을 일정정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태 정보인프라(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국가간 IT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트랜스유라시아 정보네트워크(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사업을 제창하였고, 아울러 e-APEC의 건설 및 APEC 차원의 전자정부 협력사업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APEC과 ASEAN+3 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을 주창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동참을 끌어낸 제안을 한 것도 의미있는 국제적 정보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정보격차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의 파견이나 개발도상국의 IT인력 초청 연수사업에서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하는 DGF(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관련 사업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정정도의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이 활발한 국제적 정보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동안의 IT산업의 육성과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제적 정보화전략은 실제로 CDMA와 같은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나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과 같은 성공적인 정보화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IT분야의 현장에서 일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보화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역으로 이러한 홍보전략을 통해 국내 IT산업의 대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IT기업

들과의 기술협력의 기회도 증진하려는 다차원적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구상이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최근 완성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은 그 동안의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정보화의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로 정립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방안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벌어진 한국의 IT 홍보에서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APEC 전자정부 협력사업의 주도권 행사도 정보화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과 이에 기반을 둔 디지털외교의 추진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미래전략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아직도 미흡한 점을 많이 안고 있다. 여태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은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지원하는 경제와 산업 위주의 발상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국가간(또는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지식 분야의 규범과 질서의 확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보화를 둘러싼 국가간(inter-national) 협력전략은 있었을지라도 글로벌화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글로벌 정보화 전략은 없었다. 요컨대,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 외교(analog diplomacy)의 전략을 넘어서 지식정보시대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 대응하는 디지털 외교(digital diplomacy)의 전략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외교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정보화의 문제를 외교전략의 이슈로서 인식하는 데 부족했다. 최근 세계질서의 변화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별개로 진행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인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내적 차원에 국한되어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정보화가 이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혁명

의 진전에 따라서 국가적 목표로서의 정보화의 추구는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의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세계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보화의 진전은 경제와 산업의 전략을 넘어서는 외교전략으로서의 정보화전략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외교는 주로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소위 '안보외교'를 의미하였다. 2차대전 이후 경제·통상영역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통상외교'도 외교의 개념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외교 전담부처의 명칭이 '외교통상부'라는 사실은 군사안보와 경제통상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 대한 한국의 개념적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산업협력이나 기술표준과 관련된 국제협상이나 기술·정보·지식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외교의 영역이 출현하는 것과 함께 외교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외교라 하면 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외교전담부처의 외교관이 그 주체로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기술·정보·지식의 세계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내의 실무부처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인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을 엮어내는 외교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정책 네트워크(public policy networks)'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외교의 주체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정보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디지털 외교전략을 입체적으로 구상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디지털외교의 개념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부족이다.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외교'와는 달리 정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는 정보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많은 주체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모습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를 맞는 외교의 변화를 그 과정(process)과 영역 및 주체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보화를 둘러싼 세

계환경의 심층적인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더 나아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미래전략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¹⁾

제 3 절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WSIS의 개요와 준비추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WSIS의 개최의 의와 배경 등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개요와 WSIS의 추진절차와 참여주체에 대해 살펴본 후, WSIS의 준비과정을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지역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WSIS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3자 파트너십이 기본이며, PrepCom과 비공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WSIS의 구체적인 의제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제3장에서는 WSIS의 의제를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였다. WSIS의 원칙선언과 행동계획에 대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보사회에서 반듯이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기구들의 의견과 지역별 의견을 우선 살펴보았으며, 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군별 관심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정보사회의 중요한 참여자로 부각되고 있는 시민단체와 민간부문이 제안하고 있는 WSIS의 중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WSIS에의 대응전략의 모색에 대한 것이다. 본 장은 크게 WSIS를 대응하는 국내 추진방식에 대한 내용과, 한국적 의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실무준비반의 활동과 정책연구네트워크의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을 설정하고 한국적 의제로서, 1)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 확보, 2) 인적자원개발 및 접근권 확대, 3)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와 환경), 4)기술이전 및 표준화, 5) 응용 및 콘텐츠 관련 이슈, 6)거버넌스, 정책틀, 법제도 등과 같이 6가지로 범주화하였다.

1) 정보화시대 외교(外交, diplomacy)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 (2002, 가을), pp.269~88를 참조.

제5장에서는 보고서의 논지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고, 향후 2003년에 이루어질 WSIS의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1) WSIS 준비회의 참가 및 WSIS 웹페이지 운영 등을 포함하는 WSIS 실무준비반 활동의 체계화, 2) WSIS의 준비과정에서 제기될 의제에서 한국의 위상설정을 연구할 WSIS 정책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3) WSIS 및 국내외 정보사회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WSIS 국민포럼의 개최 등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2005년에 열릴 제2차 WSIS와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중장기적 의제들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WSIS의 개요와 준비과정

제 1 절 WSIS의 개관

1. WSIS의 기본개요

가. WSIS의 개최 의의

WSIS는 정보사회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세계 정상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정보화 분야에서 열리게 되는 최초의 정상회담으로서, 각국 정상, UN 기구,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이루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WSIS 개최에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되고 균형된 이해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달성목표와 필요한 자원을 전부 포괄하는 의제를 정의하였다. 또한 정보사회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참여국 내 정보사회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주체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WSIS는 정보사회에 관한 넓은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통적인 시각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2003년 12월 개최 예정인 1차 WSIS는 정보사회의 효율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공표하고, 정보사회의 성장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원칙선언(principle declaration) 및 행동계획(action plan)의 채택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 배경

WSIS 개최가 결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튀니지가 정보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하였다. 전권위원회에서는 UN ACC(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²⁾에 WSIS 개최를 의제로 상정하고, WSIS에 대한 내용을 ITU 집행부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결의안³⁾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세계화를 위해 전 회원국의 정책, 규제,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하며, 정보통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사회의 출현을 인식하면서 정보사회 관련 정상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WSIS 배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결의안에는 WSIS 개최를 위한 비용추정, WSIS 준비상황의 정기적인 전달, 회의주제 선정 및 UN 고위급 준비회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한 연락위원회 설립 등 ITU 사무총장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ITU 사무총장은 1999년 이사회에서 ACC를 비롯한 타 기구, UN의 전문기구들이 WSIS의 개최와 준비에 협조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1998년 전권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2001년 ITU이사회에서 WSIS를 2단계로 개최할 것이 승인이 되었으며, 1차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는 2005년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01년 12월 UN 총회에서 ITU 이사회에서 채택된 WSIS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다.⁴⁾ 본 결의안 내용에는 UN 사무총장의 후원하에 ITU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도록 결정하는 WSIS 추진체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WSIS의 의제를 결정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이해주체의 참여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준비회의 과정이 개방적인 정부간 협의 구도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를 보면 WSIS 사무국(the Executive Secretariat of the Summit)에서 ITU가 운영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UN 관련기구와 UN ICT Task Force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기타 정부간 기구, 국제 및 지역 기구, 시민사

2) 현재 ACC는 CEB(United Nations System Chief Executive Board)로 기구명칭이 변경되었음

3) Resolution 73

4) Resolution 56/183

회, 민간기업, NGO들이 WSIS 정부간 준비절차나 정상회담 자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 제안 주제

UN 총회는 2001년 결의안을 통해 정상회담의 목적으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공동된 비전을 개발하고, 정보사회를 이해하며,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는데 함께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준비회의(PrepComs: Preparatory Committees)를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의제와 주제를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2002년 모로코 말라케쉬에서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제안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충분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정보통신기술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한 것인 동시에, UN의 밀레니엄 선언⁹⁾에서 나타난 인간성의 공통 목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신뢰성과 보안성의 향상이다. 기술과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오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폭넓게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신뢰성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5) UN의 Millenium Summit을 통해 21세기 UN의 역할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로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가치와 원칙, 평화·보안·군비축소, 발전과 빈곤 타파, 환경보호, 인권·민주주의·선정(善政), 약자 보호,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요구 충족, UN의 강화 등과 같은 주제가 선정되었다.

2. WSIS의 추진절차와 참여주체

가. WSIS의 개최준비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SIS는 두 단계에 걸쳐 개최된다. 1차 정상회담(2003. 12. 10~12) 개최 준비를 위하여 세차례의 준비회의(PrepCom)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WSIS 사무국이 있는 제네바에서 비공식회의가 개최된다. 1차 PrepCom(2002. 7. 1~5, 제네바)이 이미 개최되었으며, 2차 PrepCom(2003. 2. 17~28)이 최근 개최되었다. 3차 PrepCom은 2003년 9월 개최 예정이다.

그 외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등 세계의 지역별로 WSIS를 위한 지역준비회의가 개최된다.

2003년 말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에는 2005년 2차 WSIS 개최 준비를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005년 WSIS 일정 및 준비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2003년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표 2-1〉 WSIS 관련 회의 일정표

일 정	분 류	내 용
2002. 5. 28~30	지역회의	아프리카회의, 말리(바마코)
2002. 7. 1~5	1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2. 9. 9~11	보조지역회의	독립국가연합차원의 비스켓-모스크바회의, 1차 키르기스스탄(비스켓)
2002. 9. 16~18	비공식회의	컨텐츠와 주제관련회의, 스위스(제네바)
2002. 10. 21~25	보조지역회의	비스켓-모스크바회의, 2차 러시아(모스크바)
2002. 11. 7~9	지역회의	범유럽회의, 루마니아(부카레스트)
2003. 1. 13~15	지역회의	아시아태평양회의, 일본(도쿄)
2003. 1. 29~31	지역회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회의, 도미니카(바바로)
2003. 2. 4~6	준비회의	서아시아지역, 레바논(베이루트)
2003. 2. 17~28	2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3. 6 예정	지역회의	아랍연합, 이집트(카이로)
2003. 9. 15~26 예정	3차 PrepCom	스위스(제네바)
2003. 12. 10~12 예정	1차 WSIS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개최

나. 참여주체

WSIS의 참여주체는 UN 산하 기구,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각각의 참여주체의 참여동기와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UN 체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계는 국가나 국민 모두가 전례없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의 개최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운명체라 여기고 이를 반영·논의하며 구체화하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로서 제공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UN 관련 조직들은 공동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촉매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ITU의 주도하에 UN 체제와 UN의 전문기구들이 정상회담의 조직과 개최에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둘째, 각국 정부는 국가별 소득수준이나 인프라 구축현황을 막론하고 정보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의 발전과 글로벌 전략 및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사회의 혜택을 전달해주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정부는 사람들에게 정보사회에 대해 인식시키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삶의 질 개선, 복지서비스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도록 모든 시민에게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민간부문은 국제적으로 수렴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제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과 향상된 IT 서비스의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WSIS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경제성장, 새로운 파트너십, 기술이전 등을 장려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식확대, 지역별 콘텐츠 확충과 숙련된 인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WSIS참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영인 조정단(CGBI)에 의해 진행된다.

넷째, 시민사회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인 선택시 민주적 책임제의 도

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이슈에 대한 실제적 접근으로 인하여 UN 사무총장이 호소했던 국제 파트너십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의 참여주체들은 WSIS 개최 준비를 위한 회의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시 참여주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회의의 조직방식은 정부·민간·시민사회의 3자 파트너십으로 구성된다. 다만, 1차 Prepcom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NGO는 공개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UN이나 ITU와의 협의 지위를 인정받은 기업, NGO의 경우 자동으로 참가 자격을 얻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참가 신청을 한 후 사무국에서 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제 2 절 WSIS의 준비과정

1. 국제기구 차원의 추진과정

가. UN 체제의 움직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SIS는 UN 체제 내의 ITU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ITU는 전기통신의 각 부문별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온 단체로서 UN 총회를 통하여 WSIS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UN 사무총장의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UN ACC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WSIS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한 다른 UN 산하 기관과 주최국(스위스, 튀니지)의 협력을 기반으로 ITU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상기의 결의안은 UN 기관중 특히 UN ICT Task Force의 협력을 끌어내었고, 또한 정부간 조직, 국제·지역 기구, 비정부조직(NGO), 시민사회, 민간부문들의 협력을 요청하여 정상회담을 위한 정부간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자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WSIS가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UN 체제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UN 총회를 통해 WSIS가 승인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UN의 전문 기구 뿐만 아니라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가 WSIS의 HLSOC(UN산하기구 사무총장 회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ITU 역시 유엔 소속의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다른 독립된 전문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ITU의 추진내용

1) 추진체계

ITU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개선, 전파 관련 국제적 협력과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1865년 설립된 국제적 관리기구로서, 2002년 현재 18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UN소속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ITU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권위원회를 통해 WSIS 개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

WSIS 개최 준비를 위해 ITU내에 두 개의 조직 HLSOC(고위급 정상회의 조직위원회)와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을 설립하였다.

우선 HLSOC는 UN 사무총장과 UN ACC(고위행정위원회 → CEB로 변경)⁶⁾의 후원하에 설립되었다. ITU가 UN 내에 하나의 전문기구이므로 기구간 의견 조정 및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WSIS 준비에서 조직, 주최에 이르기까지 UN 기구간의 노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WSIS 의제 개발을 지원하고, 제안 의제를 발의하며, 사무국 업무를 감독한다. HLSOC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UN ACC에 직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의 실질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6) UN의 대표자 중심의 조정위원회(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CEB)는 유엔이 다루는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모든 소속기구의 사무총장이 제기하는 토론회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고 연간 2회 소집된다. 회원기구들의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2개의 고위급 위원회가 보조한다. 처음에는 유엔과 전문기구간의 합의사항의 실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회원국과 공동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유엔기구들 내에 협력의 촉진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현재 CEB에는 UN소속의 27개 회원 기구대표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ITU 사무총장이며, UN 사무총장실 대표, UN 전문기구·WTO(세계무역기구)·UNITAR(UN 훈련·연구협회)의 사무총장, UN지역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의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다.

※ HLSOC에 참여하는 UN 전문기구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량농업기구)
-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 교육과학문화기구)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World Bank Group-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등.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UN 지역경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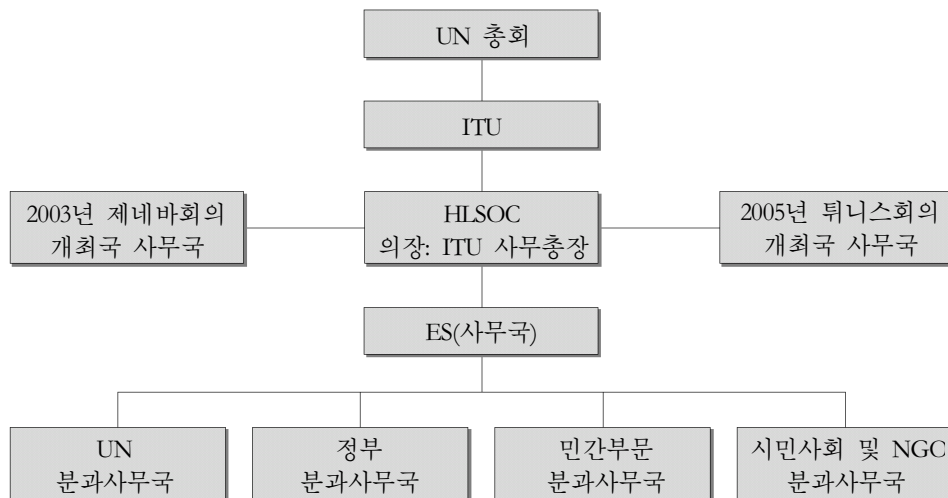
-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럽경제위원회)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
- ECA(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 ESCWA(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다음으로, WSIS 준비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은 정상회담의 준비지원을 위해 HLSO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TU 본부내에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ITU 회원국,

HLSOC에 참여하는 UN 전문기구, 민간부문, NGO와 시민사회 출신의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WSIS 준비를 위한 실무 담당, WSIS 준비 진행보고서 작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운영·시간계획 수립, 관련 자료 수집, 후원과 기금마련 등으로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ITU 차원의 추진체계 중 정상회담 주최국의 사무국이 있다. 스위스와 튀니지는 각 정상회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 WSIS의 조직도



자료: <http://www.wsis.or.kr/column3.html>

2) 1차 PrepCom과 비공식회의의 내용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5일 제네바국제회의센터(CICG)에서 개최된 첫 번째 준비 회의이다. 115개국 정부 대표들과 29개 UN 산하 및 전문기구 대표, 144개 NGO 및 28개 민간부문 대표 등 900여명이 참가하였다.

말리의 아프리카 언어연구소 소장인 Mr. Samassekou가 의장을 맡아 의사규정 (Rule of Procedure)과 내용 및 주제(contents and themes)의 2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의사규정은 제1 소위원회에서, 내용과 주제에 관해서는 제

2 소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차 PrepCom에서는 주로 의사규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내용 및 주제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원칙과 주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의사규정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과 WSIS의 취지를 따라 WSIS 및 준비회의 시 민간부문의 참여자격에 대한 규정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1차 PrepCom의 기본입장은 참여자격이 있는 단체가 준비회의나 정상회의에 옵저버의 자격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모든 민간참가자들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민간부문의 WSIS 참여 자격과 범위에 대하여 선진국은 기업, NGO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중국 등 개도국은 정부 통제하의 제한된 참여를 주장하였다. 절충안으로 ITU 및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기존 부문회원은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외 민간부문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현재 경제사회이사회나 ITU 부문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NGO의 경우에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참여 등록을 하면 참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NGO들의 목록은 PrepCom이 시작되기 2주전에 회원국 정부에게 회람된다. 기타 참여를 원하는 NGO나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이원적 채널, 즉 사무국에 직접 지원하거나, 각국 정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의 이름, 현재 연락처(주소, 담당자), 법적 지위, 단체의 설립일, 단체의 목적, 단체의 운영기구 구성원의 목록과 그들의 국적, 단체의 회원에 관한 설명(총회원수, 회원으로 가입된 조직들의 명칭 및 그 지역적 분포 등), 정상회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각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를 명시), 재정상태, 재원,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기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보고서의 복사본, 단체의 헌장 혹은 규약의 사본, 사무국에서 제공된 사전등록양식의 작성본,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단체 활동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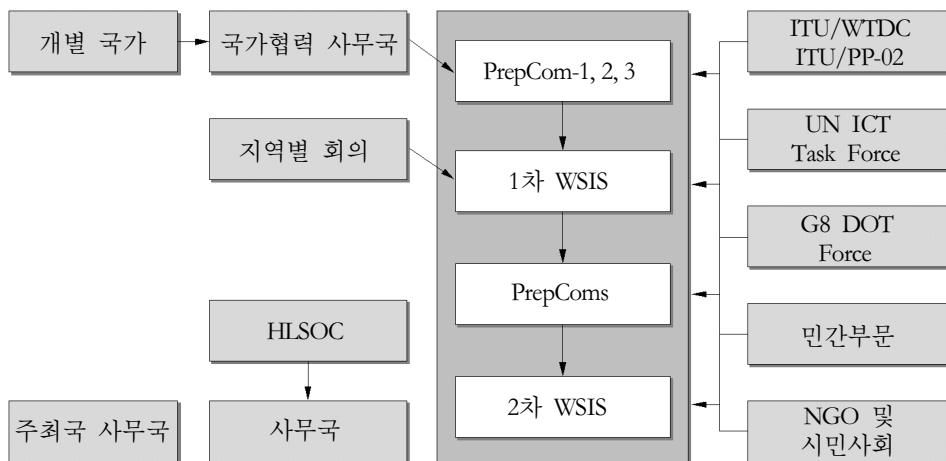
기타 참여자격 부여 관련 주요사항으로, 사무국은 정보사회와 관련된 배경과 관

여도에 근거해서 UN 비정부연락서비스(UN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의 도움을 받아 참여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되는 점과 일단 거부된 NGO나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들이 이름을 바꾸어 다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PrepCom에 일단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NGO나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은 모든 PrepCom과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NGO나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은 PrepCom 및 소위원회의 공개회의에 옵저버 지위로 참여하는 대리자로서 인정된다. 관련 회의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각 옵저버들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구두로 발표할 수 있다. 단, 발언신청 단체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NGO,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교섭단체의 대변인을 통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참여가 인정된 단체의 대리자에 의해 제출된 문건이 PrepCom의 작업과 관련이 있거나 각 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경우, 사무국에 의해서 모든 회원국 대표들에게 배포된다.

한편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원칙과 주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제네바에 상주하는 각 국 대표자들과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민간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본 비공식 회의에서는 WSIS 원칙과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그림 2-2] WSIS 회의 프로세스



결과 WSIS의 원칙(principles)과 지침(guidelines)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림 2-2]를 보면 WSIS 회의 진행 프로세스를 알 수 있다. 첫째, 개별국가로부터 기고문 및 의견서를 국가협력사무국에 제출하여 PrepCom에 제출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각 지역별 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의견 및 기고문들로 의사결정된 사항들이 1차 WSIS에서 논의될 것이다. 또한 ITU의 WTDC(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2002년 전권위원회, UN ICT Task Force, G8 DOT Force,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도 PrepCom과 WSIS의 참여주체로서 의견이 수립·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다. 기타 주요 국제기구의 추진내용

WSIS와 관련하여 기존의 UN ICT Task Force, G8 DOT Force, Digital Opportunity Initiative와 같이 이미 시작된 주요 이니셔티브와의 관계설정에도 있어, ITU는 UN ICT Task Force, G8, Digital Opportunity Initiative, 타 국제기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WSIS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을 맺기 위해 노력 중이다.

1) UNESCO

UNESCO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로서, 교육·과학·문화분야에서 WSIS의 의제와 연관된 분야가 다소 있기 때문에 WSIS 관련 의제 및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민간단체 및 교사, 과학자, 예술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등 WSIS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도국의 정보인프라', '문화적 다양성', '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이라는 4개 주제에 대한 개별 자문회의를 2002년 2월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50명의 NGO 대표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WSIS 준비과정에서의 NGO와 시민사회의 역할, WSIS에서 채택될 선언문 및 행동계획과 관련한 제안서가 작성되었다.

2002년 8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UNESCO/IFIP World Computer Congress 2002 Youth Declaration'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WSIS 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 9월 회의(international meeting)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후원으로 UN ICT Task Force와 함께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WSIS 준비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UNESCO는 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윤리적 관점, 정보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UN ICT Task Force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지역네트워크 집행위원회의 구성, 역내 사회경제 개발상에서 ICT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강도 높게 진행시켰고, 브라질 정부는 국제 시나리오 상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정부·민간·비정부 주체간의 차별화된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통합할 수 있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2002년 11월 파리 UNESCO 본부에서 '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이는 WSIS 준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도 ITU, UNECE, 루마니아 정부와 함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유럽의 정보사회에 관한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동비전 개발차원에서 의제 발굴을 목표로 한 것이다.

한편 UNESCO는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NGO와 시민사회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2차 PrepCom에서 논의될 WSIS의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토론회는 2002년 12월 9일 시작되어 2003년 1월 15일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이 기간동안 약 28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등록하였으며,⁷⁾ 2003년 1차 WSIS에 채택될 원칙 선언과 행동계획에 대해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UNESCO 회의 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창구의 역할 및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UN ICT Task Force

UN ICT Task Force는 2001년 3월에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 사무총장에 설립

7) <http://wsisforum.unesco.org> 사이트 참조

을 요청한 기구로서, 글로벌 정보격차의 다각적인 해소, 디지털 기회의 확대,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적 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 중에 있다.

Task Force의 목적은 회원국과 참가국의 자문을 바탕으로 ICT의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ICT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UN의 전체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UN 체제, 민간산업, 금융 신탁 및 재단, 기증, 프로그램, 기타 관련 국가간에 UN의 결의안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ICT Task Force는 UN이 소집한 산업, 학계, 시민사회,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2000년 4월 회의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그 목적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

ICT Task Force의 메카니즘은 범국가적으로 UN 회원국, 정부대표, 시민사회의 참여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UN 체제 조직과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등 구성형식이 WSIS 참여주체의 성격과 유사하다.

ICT Task Force가 추구하는 비전은 UN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와 대상, 특히 밀레니엄 선언에서 마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빈곤타파와 최빈국 및 저소득국가, 아프리카 등의 요구 충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Task Force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된다. 각 부문을 달성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ICT Task Force가 촉진 역할은 하되, 중복성은 피하고 공통노력을 응집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WSIS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기타 기구차원

기타 G8의 DOT(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와 각 지역 연합·협력체의 정보통신 담당기구들이 G8 및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이슈들을 개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기구들은 역시 제 3세계 개발문제를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세계은행과 UNDP 등이다.

2. 시민사회 차원의 추진과정

가. CRIS 중심의 움직임

CRIS(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는 정보사회와 다가오는 WSIS 개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통신권리를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Communication Rights), 전세계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NGO에서 지원 및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CRIS는 인권, 개인과 공동체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삶의 강화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즉 투명성, 다양성, 참여, 사회·경제적 정의, 남녀평등, 문화·지역적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사회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WSIS 추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WSIS의 제안들은 준비에서부터 컨퍼런스 자체에까지 정부, 산업, 시민사회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선언문, 실행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부, 민간, 시민의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의제를 구성한다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회담의 개최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WSIS를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시민사회 간의 공동조정과 협력을 통해 그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CRIS와 함께 WSIS를 위해 구성된 시민사회조정그룹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1년 11월 'WSIS의 이슈: 정보사회 인간의 권리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하여 '통신권리를 위한 플랫폼(PCR)'과 CRIS 제네바사무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공영방송인, 커뮤니티 미디어, NGO들로 구성된 35명이 참석하여 최초로 WSIS 공식 시민사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공식 시민사회 자문회의는 라틴아메리카, 북부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NGO(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공영미디어, ITU, UNESCO 등 40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⁸⁾ 이 자

8) 세미나 내용

리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특히 WSIS의 의제와 목표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2002년 6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시민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CRIS 설립회원 중 하나인 ALAI(Association Lit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가 에콰도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를 2002년 6월 10~12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CRIS 임시운영위원회와 워킹그룹이 형성되었다.

2002년 7월 드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WSIS 시민사회 사이트(<http://www.wsis.info>)의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이어 1차 PrepCom에 대한 CRIS와 시민사회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 활동과 우선 순위를 갖고 제네바의 1차 PrepCom에 참석하기 위해 왔으나, PrepCom의 회의 참여방식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합의 도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우선 조직사무국에 참여하고, 공식·비공식 안건토의에 참여하며, 절차상으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의사진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차 PrepCom의 회의결과는 기업과 NGO를 공개회의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는 사무국에서 옵저버로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제 개발에서 제외되었고 공식절차에서 참여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절차와 인가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1차 PrepCom의 주요 결과물인 절차와 인가규정에 대한 분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2002년 9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내용과 의제에 대한 비공식회의를 준비하였으며, CRIS는 WSIS 진행상의 의사소통 문제점과 내용 및 의제와 관련한 서신을 WSIS 사무국에 접수시켰다. 또한 주목할 만한 활동사항으로는 WSIS를 위한 임시

-
- 세션1: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이슈 소개
 - 세션2: WSIS의 6개 제안이슈 연구/그룹세션
 - 세션3: UNESCO와 ITU/WSIS 대표가 배경 설명
 - 세션4: 결론과 향후 방향 검토

시민사회조정그룹이 설치되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쉽지 않고 충분한 의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WSIS 사무국장과 시민사회 분과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WSIS 비공식회의에 제출한 임시 시민사회조정그룹의 내용과 의제에 대한 성명은 시민사회조직 대표들의 의견과 공동조정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조직들은 하부위원회, 간부회의, 작업반으로 나뉜다.

2002년 10월 시민사회 총조정반(CSCG: Civil Society Plenary Coordinating Group)은 여러 하부위원회, 간부회의, 작업반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PrepCom을 통해 NGO 중심의 많은 하부위원회와 그룹이 조직되었으며, 특히 모든 기존 하부위원회나 새롭게 제안된 하부위원회, 간부회의, 작업반들은 기본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CSCG의 후보로 지명되었다. 다음에 언급할 CONGO도 이 그룹에 속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위하여 NGLS(United Nations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과도 연대한다.

2002년 12월 Bread for All(스위스), WACC(영국,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Forum Asia⁹⁾(태국)가 공동으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아시아의 입장(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An Asian Response)”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콕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16개국 34개 조직의 대표들이 참가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NGO들이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WSIS 자체의 문제점, 다시 말해 리더십, 명확한 비전, 실질적인 정책의지의 부재로 인하여 WSIS는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여러 차례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여전히 시민사회의 공동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에서 미디어 전문가와 NGO들이 함께 모여 플랫폼을 구성하였다.¹¹⁾

한편 WSIS 시민사회 분과사무국에서는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의 WSIS 의제형성을 논의하고 있다. CPSR은

9)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10) 세미나 보고자료와 최종 선언문은 <http://crisinfo.org/docs/asianresponse.rtf> 참조

11) 스위스연합(SCDO: Swiss Coalition of Development Organizations)

CRIS와 같이 주된 역할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프라이버시보호 등과 같은 정보사회의 쟁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온라인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 분과사무국내에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온라인 워킹그룹은 형성되어 있다.¹²⁾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내에 시민사회분과가 있으나, 단순한 행정적 지원팀으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하거나 시민사회운동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CONGO 회의 구성

UN과 함께한 NGO 컨퍼런스인 CONGO(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가 주최한 아시아 시민사회포럼 2002(ACSF: asia civil society forum)회의가 WSIS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이 결과 CONGO의 ACSF에 참가한 국가, 지역, 국제 NGO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세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요청하며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 포럼에 참가한 단체는, 일본의 GLOCOM, 방글라데시의 Mission, 필리핀의 Foundation for Medai Alternative, 싱가포르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태국의 Forum Asia, 인도의 One World South Asia, 스위스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 한국의 진보넷 등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성명서가 작성되었다.

3. 민간부문 차원의 추진과정

민간부문(기업)의 경우 정부나 시민사회에 비해 아직 조직화된 의견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UN 총회나 유럽 지역회의 등에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등 WSIS 관련 회의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시민단체 참여확보, 의제 및 주제 설정, 시민단체 참여 지원 및 재정, 아시아 집단, 아프리카 집단, Gender 이슈 특별집단, 청소년 집단, 인권 집단, 기술/과학 집단, 의사소통권, 환경과 ICT 작업 집단, 원주민 집단, 대학 및 연구단체 작업집단 등의 주제로 온라인워킹그룹이 마련되어 있다(<http://geneva2003.unige.ch/MEMBERS/participation.php> 참조).

가. CCBI의 구성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WSIS 참여를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CCBI(경영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CCBI는 전세계 비즈니스 공동체의 정상회의 참여를 조정하고 유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개별 기업 대표들과 여타 기구들의 대표로 이루어진다. CCBI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조직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포함하여, 합동조합 경영위원회(Business Council of the United Union), OECD 경제산업자문기구(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글로벌 정보인프라 위원회(GIIC: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화폐연구소(Money Matters Institute), 미국 국제경영협회의(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usines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정보통신서비스연맹(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 Alliance) 등이 있다.

나. GIIC의 활동

GIIC(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ttee)는 WSIS 절차상 민간부문의 의견통로로서 UN이 승인한 CCBI의 회원이다. WSIS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GIIC는, 1995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전 세계적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관한 G7 정부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발족한 회원국 민간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통신망의 개방, 국제 서비스 체제의 구축 및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 정보 고속도로 구축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GIIC위원은 선진국, 개도국, 신흥시장국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출신들로 구성되며, 독립적이고 비정부적인 이니셔티브를 표방한다.

GIIC의 WSIS 관련 참여활동을 살펴보면, 1차 PrepCom에 참석하여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상황에서 2002년 9월 WSIS 이슈에 대한 국제 경영대표들의 의견을 조사한 예비결과가 발표되었다. GIIC가 수행한 본 서베이 결과는 ITU가 주최한 회의에서 UN 회원국 외무부 장관과 GIIC 대표가 함께 토론하였으며, GIIC가 WSIS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1위가 인프라의 재정과 구축(69%), 2위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50%), 3위가 정보사회로의 장벽해소(46%), 4위가 ICT에 대한 접근성 강화(44%)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제안된 주제에 대해 정보격차관련 이해와 공

유가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세계 경영인들이 정보격차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좌절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또한 WSIS의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도움이 되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료에 로비를 기꺼이 한다는 응답도 2/3 이상이 나왔다.

2002년 11월에 GIIC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범유럽 지역장관회의¹³⁾에서 GIIC 대표가 참석하여 “기본으로 돌아간” 접근방식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공의 통신인프라시설이 개발·발전되기 위해서는 투자촉진적인 환경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ICT 투자와 국가의 경제성장간에 ‘명백한 연계’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GIIC의 상임대표는 2002년 2월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준비회의에서 민간부문 대표로서 감독하였고, ITU의 아시아 2002 컨퍼런스와 연계되어 개최된 GIIC 정기회의에서 WSIS 운영과 계획에 대한 감독 등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4. 지역차원의 추진과정

지역준비회의는 세계의 지역별로 각각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표 2-2〉 지역회의 일정

회의명	일 시	개최지
아프리카지역회의	2002. 5	말리
범유럽지역회의	2002. 11	루마니아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2003. 1	일본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회의	2003. 1	도미니카공화국
서아시아준비회의	2003. 2	레바논
아랍연합지역회의	2003. 6	이집트
비슈케-모스크바 부속지역회의	2002. 9	키르기스스탄
	2002. 10	러시아

13) <http://www.wsis-romania.ro/> 참조

가. 아프리카 지역회의(바마코 2002. 5)

2002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말리공화국의 바마코(Palais des Congres in Bamako, Republic of Mali)에서 개최되었다. 지역준비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정보사회에 대한 우선 순위와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의하였다.

아프리카 지역회의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이 모든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최빈국들의 이해에 부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유럽 지역회의(부카레스트 2002. 11)

2002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WSIS를 위한 범유럽지역 준비회의로 부카레스트 성명서(the Bucharest Declaration)를 채택하였다. 회원국들과 UN 유럽지역경제위원회(UN ECE)가 참석한 범유럽지역회의는 WSIS의 기본 원칙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도쿄, 2003. 1)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는 2003년 1월 13일~1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공공관리·내무·우정통신부, 외무부와 UN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위원회(UN ESCAP)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협력기관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APT), infoDev(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¹⁴⁾ ITU, UNDP, UNESCO, 국제연합대학(UNU)이 있다. ESCAP 회원국 4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ADB, APT, ITU, UNDP, UNESCO, UNU,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대표 22개 기구와 민간기업 대표(54개), NGO와 NPO 대표 116개 인사가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 7개국 정부대표, 9개 국제기구가 기고문을 제출하였으며, 민간부문(기업)은 기고하지 않았고, 19개 시민사회 및 학계 일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정보

14) infoDev는 정보주도형 세계경제환경이 강조됨에 따라 1995년 9월 출범한 프로그램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ICT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World Bank가 관리하고 있음

사회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의제 및 아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회의(바바로, 2003. 1)

2003년 1월 29일에서 31일 도미니카공화국 바바로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지역준비 장관회의의 참가자들은 UN 라틴/카리브해 지역경제위원회(UN ECLAC)의 협력으로 WSIS에 기여할 선언문을 제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ITU, 타 UN 전문기구, ECLAC를 향하여 역내 발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바로 선언이 발표되어 12가지의 주요 원칙(guiding principle)이 공표되었다. 여기서 ECLAC는 2002년 12월 13일자로 “역내 정보사회로 가는 로드맵(Road Maps Towards an Information Socie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마. 서아시아 지역회의(베이루트, 2003. 2)

UN 서아시아지역경제위원회(UN ESCWA)는 2003년 2월 4~6일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개최하였다. 레바논의 우정통신부가 대표하여 주최하였으며, ESCWA와 ITU의 협력을 받았다. 이외에 유네스코, 세계은행, UNDP, UNCTAD로부터 협력을 요청하였다.

본 회의는 지역의 위치를 점검하고 제안의견을 내기 위해 국가간의 관점을 조화시키기 위한 준비모임의 역할을 수행한다.

ESCWA 회원국의 장관, 고위급 정책결정자, 저명한 ICT 정책 전문가, NGO, 시민사회, 지역·국제기구, 민간부문 등 총 300명이 참가하였다.

바. 아랍연합 지역회의(카이로, 2003. 6 예정)

2003년 6월 장관급수준에서 아랍연합지역회의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집트의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부가 주관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항은 ITU의 WSIS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사. 비스켓-모스크바 부속 지역회의(비스켓 2002. 9, 모스크바 2002. 10)

WSIS를 위해 독립국가연합 차원의 준비 모임 격인 비스켓-모스크바 지역회의가 조직되었다. 1차 회의는 2002년 9월 9~11일에 비스켓에서 개최되었고, 2차는 10월 23~2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정보사회에 대한 비스켓-모스크바 지역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본 회의는 독립국가연합과 터키에서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도전들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회의 규모는 12개국에서 정부 대표와 민간기업 부문의 대표, 시민사회가 참여하였다.

제 3 절 WSIS 준비과정의 특징

1, 2차에 걸쳐 개최되는 방대한 규모의 WSIS는 장기간에 걸쳐 전세계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 차례의 준비회의(PrepCom)가 개최되며, 이러한 준비회의를 통하여 회의의 참여방식, 의제, 선언문 초안 등이 논의된다. 2002년 7월 이미 개최된 1차 PrepCom에서는 회의방식(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에 대해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두 개의 부속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제1 부속위원회는 회의방식을, 제2 부속위원회는 의제를 담당하였다. 2차 PrepCom은 2003년 2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1차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 대표단, NGO, UN 사무국 기관에서 가장 많이 참석할 예정이고, 민간부문·UN 전문기구·정부간기구 등의 참석도 예상된다. 3차 PrepCom은 2003년 3/4분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 차례의 PrepCom과는 별도로 각 지역별로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는 각 지역별 특수한 상황과 전략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의이다. 이외에도 제네바에서 비공식회의가 개최되거나, 기존 다른 회의에서 WSIS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특히 전세계의 NGO들은 각 국가별/지역별로 WSIS에 대비한 회의와 연대 네트워크를 이미 조직하였다.

WSIS는 처음 추진할 당시 UN 체제 내에서 ITU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목되었던 정보사회 이슈 중에 하나인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전세계적인 협력과 의견의 공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 정부가 참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사회, 재정과 투자주체인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제한적인 참여기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도 적극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까지 WSIS 관련 회의의 진행과정 상, 각국 정부 대표와 WSIS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참여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정보통신 이슈에 관계된 WSIS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로는, 1, 2차 WSIS를 통해 선언될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이 비록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국제적인 합의과정을 따라 도출될 예정이므로 관련국의 정보통신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국 정부는 국제적 이해관계와 자국의 발전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나, 선진국·중진국·개도국 및 후진국 등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WSIS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영역이 갈리기 때문에 1차 PrepCom이나 비공식회의 등 의제의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WSIS의 공식적인 선언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있어 일종의 지침이나 정부에 관련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WSIS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찍이 활동해왔다. 그러나 1차 PrepCom의 결과 시민사회는 결정된 회의방식과 각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식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합의된 절차 규칙에는 공개회의에의 참관만 규정되었을 뿐 관련 부속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NGO들의 주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민간기업의 참여를 NGO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전통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가 이중으로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NGO의 발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NGO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UN 회의와 독립적으로 NGO들의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의 국제회의의 경우, 본 회의는 보통 이벤트로 끝나고 그 이전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협상을 통해 논의되고 조율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1차 정상회담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개최되는 PrepCom과 지역회의 등에서 보다 심도있는 주제들이 검토되고 성숙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WSIS에서 다루게 된 의제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저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시민사회는 이에 협조하는 태도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IT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추진의지와 기업의 투자, 국민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아직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비한 공식적인 국가전략이 명백하지는 않다. 이에 이미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겠다.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은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많지 않으나 WSI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 주도권을 잡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스스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 현안으로는 2003년 2월에 당장 개최될 2차 PrepCom 등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각국, 시민사회, 민간부문, 지역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제 3 장 WSIS의 의제

제 1 절 WSIS 의제의 기본성격

정보사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는 최초의 정상급회담인 WSIS의 의제와 결과물로서 도출될 원칙 및 행동계획은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더불어 WSIS는 경제적 파급효과, 인터넷 공동체의 주도권 변화, 국제협력 질서와 관행에 이루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의제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적 이해와 그를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WSIS의 배경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환기하고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WSIS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 규제,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조화로운 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1998년 ITU의 전권위원회 결의안(Resolution 73) 또한 WSIS 의제의 기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WSIS의 의제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보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포괄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정보사회 비전 형성과 정보격차 해소라는 커다란 맥락 내에서 각 국가 및 지역, 국제기구,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WSIS의 의제에 대한 논의는 WSIS의 의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지어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1차 PrepCom에서는 WSIS 의제가 포괄하여야 하는 원칙과 주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논의들만이 이루어졌다.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재정 마련·분배 및 지속가능성, 정보사회 구현의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과 극복, 개발을 위한

ICT의 증진을 위한 정부·민간부문·시민사회의 역할, 교육·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정보네트워크의 보안, 정책과 규제의 틀에 대한 개발, ICT어플리케이션(교육, 보건, 문화, 빈곤퇴치, 정부, 고용, 비즈니스 등)이 초기 제안된 주제들이다.

의제에 대한 논의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원칙과 주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에서 본격화되었다. 본 회의는 제네바에 상주하는 각 국 대표자들과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민간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의제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비공식 회의에서 WSIS의 원칙(principles)과 지침(guidelines)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11개의 원칙과 9개의 의제안을 제안하였다.

〈표 3-1〉 1차 PrepCom 비공식 회의 결과 중 WSIS 원칙

-
1. 정상회담과 준비회의는 정보격차 극복을 위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이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발전 중심적이어야 한다.
 2. 정보사회와 두 번째 원칙은 정보화 사회와 정보격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공동적인 이해를 찾아야 한다.
 3. 정상회담은 기반시설과 콘텐츠 이슈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4.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우위를 두어야 한다.
 5. ICT의 상대적인 도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6. 국제적 협력의 정신이 널리 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7. ICT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밀레니엄 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8. 정보화 사회에 대한 보편적, 포용적(inclusive)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9.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폭넓은 동반자관계가 필요하다.
 10. 불리한 상태에 있는 공동체들, 즉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토착민 그룹, 이주민 공동체 등의 혜택을 위한 ICT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11.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

본 비공식 회의에서 제안된 WSIS의 원칙은 WSIS의 특성을 보여준다. 첫 번째 원칙부터 네 번째 원칙까지의 내용은 WSIS 논의 초기부터 다루어져 온 내용으로,

WSIS가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도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다섯 번째 원칙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추가된 내용이다. 아홉 번째 원칙은 아직 논의할 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동반자 관계의 폭넓은 스펙트럼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열 한 번째 원칙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다.

주제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다.

〈표 3-2〉 1차 PrepCom 비공식 회의 결과 중 주제

-
1. 정보와 통신 인프라
 2. 정보사회 달성 과정에 존재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인간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극복
 3. 정보 및 통신 과학, 기술에 대한 접근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에 기반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4. ICT의 증진과,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한 정부, 관련 UN 기구들과 조직들, 관련 국제·지역·개별 국가의 단체들의 역할
 5. 능력 개발
 6. 보안
 7. 국가적, 국제적 환경을 제고하고 정책과 규범 기초들 그리고 기업과 업체들을 위한 운영 코드 형성
 8. 모두에 대한 발전 중심적인 ICT 적용의 증진(예-교육, 보건, 문화, 빈곤 퇴치, 전자정부, 고용, 사업, 전자 상거래, 지역적 컨텐츠, 환경, 재난 방지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음성 및 촉감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9.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들의 참여 촉진
-

첫 번째 주제 영역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재무 및 투자·적정가격(affordability)·발전·지속성·투자에 대한 파트너십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하위 이슈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 영역으로는 정보화 사회 달성 과정에 존재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인간적 측면에 대한 정의와 극복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정보와 통신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접근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에 기반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들의 형성이다. 더불어 이 영역에 기술전이를 포함하는 것과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라는 개념을 덧붙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놓아두었다. 비공식회의에서 제안한 네 번째 주제영역은 발전을 위한 ICT의 증진을 포함하여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정부, 관련 UN 기구들과 조직들, 관련 국제·지역·개별 국가의 단체들(재무 및 발전 기관들과 기업 부문 및 시민 사회·NGO들, 학술 기관, 미디어, 다른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이다. 다섯 번째 주제 영역은 능력 개발이다. 여기에는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 훈련이 포함된다. 비공식회의에서 제안한 여섯 번째 주제 영역은 보안과 관련된다. 이 영역에 대하여서는 확신 있는 제안을 보류하고, 선택가능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정보 네트워크 보안(information network security)이 그 하나이다. 두 번째 선택안은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과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글로벌 ICT 거버넌스이고, 세 번째 선택안은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과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이다. 네 번째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을 제안하였다. 일곱 번째 주제영역으로 제안한 것은 국가적, 국제적 환경을 제고하고 정책과 규범 기초들 그리고 기업과 업체들을 위한 운영 코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주제영역은 ICT 활용에 대한 것으로, 모두에 대한 발전 중심적인 ICT 적용의 증진(예-교육, 보건, 문화, 빈곤 퇴치, 전자정부, 고용, 사업, 전자 상거래, 지역적 콘텐츠, 환경, 재난 방지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음성 및 촉감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아홉 번째는 ICT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들의 참여 촉진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가미되었다. 비공식회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의제가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WSIS의 의제는 일련의 지역회의와 준비회의를 통해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발전하고 있다. 각 회의 및 각국 및 참여자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이슈만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점차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칙선언 및 행동계획에 삽입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사회의 포괄성으로 인해 점차 국가군별, 지역별, 행위자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주제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각 지역 및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각기 다르며, 따라서 각 사회가 제기하는 관심사나 지향점은 환경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경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슈들이 추가되고 있다. 점차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WSIS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접근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 격차 해소의 맥락에서 다양한 의제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사회의 영향력 혹은 정보사회가 포괄하는 넓은 범위 맥락 안에서 다양한 의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WSIS 주제에 대한 논의들은 이 두 가지 맥락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제 2 절 WSIS 의제에 대한 입장

1. 국가 및 국제기구

가. 국 가

각 국 정부는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각 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물질적 기반 확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1) 정보화 선진 그룹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가 발전된 선진국들은 WSIS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국한된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 정보사회에 관련하는 포괄적인 주제영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보화가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다. 물론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차이는 발견된다. 미국은 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문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장개척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미디어 병합현상이나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

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규율할 지역적인 혹은 법세계적인 논의와 규제 틀의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나 테크놀로지가 사회전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제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미디어의 자유, 바람직한 거버넌스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의제에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라고 광범위하게 지칭된 참여자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지역 콘텐츠(local content)의 중요성, 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한 성공 사례, 민간 부문의 참여, 시장 자유화, 독립적 규제 기구 설립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 표명하였다. 공공재로서의 정보 개념에 덧붙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를 삽입하기를 제안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의 법적 문제 영역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내용 규제 및 인간 복제 관련 언급에는 반대하였고, WSIS가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와 강하게 연계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WSIS의 진행과정에서 개별 국가 수준에서 재정의가 필요한 다수 주제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모습의 제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빈곤퇴치, 보건, 지속가능한 발전, 바람직한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6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WSIS 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원칙 선언과 관련하여 미국은 WSIS에서 이루어질 선언은 여러 가능한 목표 설정 중 하나의 선택안이 될 것이므로 보다 유연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띄기를 제안하였으며, WSIS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미온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WSIS가 하나의 선택 가능한 가이드 라인 제공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WSIS의 과제로 전자학습, 정보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호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정보사회의 포괄적 이슈에 대하여 WSIS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의 정보격차 해결방안의 모색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충분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경제위주의 약탈적 세계화를 지양하고 진정한 지구촌 건설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스위스는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 및 이해 관련자들과 다른 국제 기구들의 동원에 대한 시각의 명료화 필요 지적하였다. 더불어 상이한 지역적·상이한 제도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에 따라 전체 주제에 대하여 하위분류를 하는 형태가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같이 스위스는 '밀레니엄 선언'과의 구조적 연계가 불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밀레니엄 선언 및 그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기여 부분은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될 뿐 논쟁과 결과물의 구조를 결정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덴마크는 지난 PrepCom-01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대표하여 WSIS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 시민단체 및 기업간 삼위일체의 중요성과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학습(e-learning), 전자수용(e-inclusion) 등의 3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하였다.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개발문제와 정보사회에 대한 공동인식의 균형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이 기술문제 이외에 지적재산권, 언론 자유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2년 11월에 개최된 부카레스트 범유럽지역회의의 성명서에 기본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적 관점에서 정보사회의 발전은 광범위한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상호연관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10년에서 15년 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럽연합은 부카레스트 성명서에서 언급된 주요 요소들이 정보사회의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들임을 재인정하였다. 정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투명성 제고, 책임성과 바람직한 거버넌스 증진에 무한한 잠재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빈곤 퇴치 및 남녀 차별 철폐, 밀레니엄 선언의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조화를 통해 모든 인류가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권 보장, 특히 사이버 공간이 자유, 개인정보보호, 인류 안보, 정의의 새로운 장으로 탄생하기를 희망하였다. 정보, 지역 및 국제 기구, 민간 사업자,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를 통해서만이 정보사회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3-3〉 WSIS 의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

-
- 바람직한 환경, 투자, 적정 가격,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
 - 능력 개발
 - 거버넌스
 - 문화적 다양성 및 지역 콘텐츠 증진
 - 정보네트워크 보안
 - 정보 보안
 -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증진
 - ICT 활용 증진
-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지역회의의 바마코 선언(the Bamako Declaration)과 범유럽지역회의의 부카레스트 선언(the Bucharest Declaration)과 자신의 경험을 종합하여 WSIS의 원칙선언에 다음의 내용들을 삽입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표 3-4〉 WSIS 원칙선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

-
-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보장
 - 적정가격으로의 보편적 접근 증진
 - 언어적 · 문화적 다양성 증진
 - 인간능력 개발
 - 법적 · 제도적 ·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바람직한 환경 조성
 - ICT 활용에서의 신뢰성과 보안성 실현
-

유럽연합은 WSIS의 행동계획이 ‘전자수용(e-Inclusion)’,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학습(e-Learning)’, ‘전자비즈니스(e-Business)’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네 가지는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균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차원·지역적 차원·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 규범들은 모든 활동들의 선행조건들이며, 전자전략(e-Strategies), 규범들, 정보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거버넌스는 정보사회의 신뢰성 형성을 위하여 필수부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WSIS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돌아가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WSIS가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정책 이슈들을 고려하여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제네바 정상회의가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합의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행동 계획 등의 실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분권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일본은 WSIS가 UN과 ITU의 공동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보다는 정보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각 지역의 이해와 다양성을 포괄한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WSIS를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의 목적지인 비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준비사무국이 만든 초안을 지지하였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회의를 통해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 구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지역과 태평양 도서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정보화 비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기반시설 측면에서 WSIS 의제에 접근하고 있다.

2) 정보화 중진 그룹

정보화 중진 그룹들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WSIS 의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 국제 규범 및 정책들이 향후 국가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의제들이 다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WSIS가 개발에 관한 이슈만 다를 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슈들은 다루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나 인권에 관한 내용이 WSIS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국가간 전통과 발달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야하며, 정보인프라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WSIS의 주제로 인력자원 및 능력 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력, 문화적 다양성의 보전,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 네트워크 보호 6가지를 제안하였다. 중국의 의견은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관련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보안 관련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관련 규범 적용, 전자 보안(electronic security)의 표준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free-flow of information)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독려하는 다소 적극적 역할을 WSIS가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정보격차 등이 속한 발전 관련 주제보다 정보사회 환경에 관련한 기술표준화 및 규범 형성에 관심을 가졌다.

러시아공화국은 WSIS의 주된 이슈로 정보 사회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과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ICT 발전이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 사회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전자성(electricity)', '네트워크(network)', '의사소통(communication)', '컨텐츠(contents)', '사람(people)'을 제시하였다.

인도는 국가간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내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의 전화접속 등 UN 밀레니엄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범세계적 최저수준의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적정한 요금, 재원확보, 경쟁구도, 통신민영화, 규제체계, 인력개발, 보편적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3)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은 WSIS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집중하

며, 국제적 정보격차와 함께 세계의 지원 속에 자국 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해외의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다. 대체로 국제적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국내적 정보격차 해소에도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개별국가들이 처한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요건을 고려하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브라질은 개도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WSIS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WSIS가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음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WSIS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개발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식적인 PpceCom 회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및 민간참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격차 및 발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위하여 R&D를 지원하여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ICT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대중에게 일반이익으로써 개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브라질은 공식적 채널을 통한 의견 조율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자금 지원을 희망하며, WSIS의 행동선언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수립되어 실제적으로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ICT 및 인터넷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정보 공유를 암시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쿠바는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적 협력은 주권, 지역적 통합성, 정치적 독립성, 비폭력성, 내정불간섭 원칙들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체로 이미 제안되어 있는 의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남부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외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 경감, 부채 말소 외 혁신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국제적 고려의 중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밀레니엄 선

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담, 인권관련 국제회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쿠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원칙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별 수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수립과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정보의 질 또한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모로코·시리아 등은 확실한 재원조달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은 개발과정에서의 비용이 개도국의 정보사회 건설의 장애임을 지적하였다. UN의 협력 아래, 개별 국가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적인 기한과 달성목표들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이나,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다. 더불어 자국 문화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과의 조화 속에서 정보사회를 위한 ICT 사용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베네주엘라는 WSIS 의제에 포함될 사항을 제안하면서, 인터넷 접속의 민주화를 언급하였다. 정보격차를 극복하고 정보 및 지식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인터넷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이 지불하는 접속료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IP 분배에 있어서 투명성의 부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ICANN의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 참여를 위한 메카니즘이 부족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컴퓨터 범죄, 국가 안보 문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국제적 공동 기준 및 원칙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업무수행과 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기회에 주목하였다. ICT는 발전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베네주엘라는 ICT 관련 국제 논의에서 민주성 의제를 언급함으로써 개도국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ICT 활용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접속료 지불 문제를 구체적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WSIS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청사진도 제시할 것을 요구

하였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력개발, ICT 능력 향상 및 정보화경험의 공유 등을 강화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이지리아, 수단, 페루, 이집트 등은 발전을 위한 ICT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력자원 개발이 필수불가결임을 강조하였다.

멕시코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 국제기구

국제기구들은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서 ICT가 인류의 안녕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와 함께 WSIS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그를 위하여 각 기구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정보통신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 기구 및 조직들은 공동으로 밀레니엄 선언과 기존의 다양한 정상회의, 그리고 DOT force, UN ICT Taskforce 등과의 연계강화를 제안하였다. WSIS 사무국을 주도하는 ITU 및 UN 이외에는 G8의 DOT(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와 각 지역 협력체의 정보통신 담당 부분들의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등이 G8 및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기구들은 제 3세계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UN 관련 기구 등이다.

1) ITU

WSIS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ITU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진 ITU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ITU는 '모든 사람을 위한 ICT 접속 제공', '사회 경제 개발 수단으로써의 ICT', 'ICT 사용에서의 신용과 안전'을 WSIS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목적들은 ITU의 핵심 능력과 관련해 선택되어졌다. 이는 ITU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의 기회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U는 WSIS의 원칙선언에 다음의 내용을 삽입하기를 제안하였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권리 보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접속 증진, 국제적인 협력 강화, 지원 환경 조성, 인간의 능력 개발, 언어적·문화적인 다양성 증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안전 강화, 특히 개발 도상국가에서 온 생산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 접속 증진, 범세계 도전이 그 내용이다.

ITU는 PP(Plenipotentiary Plenary)-02에서 WSIS가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잠재력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안하였다. 적정 가격의 보편적 접근의 증진을 두 번째 지침으로 제안하였으며, 세 번째 원칙으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언급하였다. 넷째로 실현가능한 환경 조성과 다섯 번째로 인간 능력 배양을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 지침은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이었으며, 일곱 번째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이다. 개발도상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의 확대, 글로벌한 도전들에 대한 인식 환기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지침으로 제안되었다.

원칙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하여서는 3개의 카테고리에 세부적인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모든 이에 대한 ICT 접근 제공이다. ICT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이슈, 정책 및 규범 틀 마련 이슈를 제기하였다. 더불어 정보격차 현황 판단 및 검토와 ICT 영역의 개발 및 발전(R&D) 활동 참여 이슈도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두 번째 영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ICT이다. 인적자원개발, ICT에 대한 공동체 접근, 개발도상국·최빈국·소외계층·고립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특별한 활동 수행이 세부 이슈이다.

세 번째 영역은 ICT 사용에서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정보통신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 인식 확대를 위한 메카니즘 형성과 그를 위한 자원 마련 메카니즘 형성이 첫 번째 이슈이며, 정보통신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 현재 존재하거나 잠재적인 위험들에

대한 인식과 연구(해킹, 바이러스 등)가 두 번째 세부 이슈로 제안되었다. 정보통신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의 기술 정보 교환 및 국제적 협력 강화가 마지막 이슈이다.

더불어 이들은 UN의 노력에 대하여 ITU의 핵심역량 내에서 협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보통신 체계와 정보 자원에 대한 해로운 간섭 및 오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안 검토, 우발적 사건에 대한 대응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우발적 긴급상황의 보안에 대한 대응(emergency security incident response)'에 대한 조직 및 대처 방법 형성, 정보통신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국제적 협약과 같은 장기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2) UN 기구

UNCTAD는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전자 비즈니스(e-business)의 확산과 촉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경제가 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 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UNESCO는 ITU 외 가장 적극적으로 WSIS에 참여하고 있는 UN 산하 국제기구이다. UNESCO의 행동은 4가지의 원칙, 즉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속,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UNESCO는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본래의 역량을 ICT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 및 소외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WSIS에 제안하고 있다. 정보의 흐름 자체가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로벌 정보사회보다는 지식사회의 개념을 증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식사회 건설을 위하여 개발을 저해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정보·성공사례·지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흐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더불어 윤리적 문제 및 정보사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원칙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UNESCO가 추구하는 4가지 전략 목적은 디지털 기회 및 사회적 포용의 증진, 능력 개발·권한분배·통치·사회참여 등에 ICT 사용, 과학적 연구·정보공유·문화창조·지식사회간 공유 능력 증진, 다양한 콘텐츠 및 전자 배달 체계를 통한 학습기회 증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UNESCO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CT를 통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 문화 및 교육의 권리 보장하고, 가능한 넓은 정보와 지식, 교육, 문화의 접속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높은 질의 다양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유통되게 하며,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UNESCO는 WSIS를 통하여 평등한 정보 접속, 평등한 교육 접속,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회와 사회적 포용과 ICT 사용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정보 사회가 이룩되어야 하며, ICT 사용은 지역 사회를 강화하여 빈곤을 타파하고 소외를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과 당국 사이의 의사 소통을 증진하고,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수준의 사회 그룹 참여가 이루어지고, 전자정부 개발로 정보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칙·정책·규제적 프레임워크·연구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전문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센터, 텔레센터나 도서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접속이 증가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서비스 방송을 증진하고, 지역 콘텐츠의 창조와 공유 그리고 ICT 응용 증진 및 이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증가하여야 하며, 정보사회의 여성과 아동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정책이 장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보와 지식 자원의 접속이 독려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ICT 관련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래 UNESCO의 역량을 확대하여 교육, 과학, 문화의 생산과 보급 및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가와 이익 집단의 네트워크 개발로 효과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의 공유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ICT 사용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문화 산업에 ICT 사용을 육성하며, 문화재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증진하는 데 구체적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더불어 언어 다양성을 장려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보호·보급이 이루어지고, 고품질의 시

청각물 개발에 있어 공공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시스템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 과정 소개에 있어 ICT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융통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낮은 비용의 교육과 교육 시스템의 내·외부적 효과 향상을 위하여 ICT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교육에서 ICT 사용의 성공사례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의 지식 보급하고, EFA(Education For All)의 목적 달성을 위해 ICT 기반 대체 교육시스템을 발전시키며, 교육방법 및 콘텐츠와 교사-학생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 등 ICT에 의해 추진된 연구 결과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 활동으로 원격교육을 위한 국제 호환 디스크립터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을 통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UN환경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환경 이슈에 대한 ICT 활용의 확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 정보체계의 구축과 ICT 활용에 대한 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소외된 그룹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천연자원관리에 대한 ICT 기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과 효율성의 조화, 오염 없는 생산품, 지속가능한 소비, 공적·사적 파트너십의 형성과 같은 ICT와 환경에 대한 지역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ICT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사용을 촉진할 것과 지역 언어 기반의 지역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유지, 지역 주민으로의 확산, ICT 혜택의 확산,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 경험의 공유를 주요 주제로 제안하였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ICT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와 업무환경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ICT 관련하는 노동의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CT를 통해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근로자들·고용자들·여성·청소년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개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3-5〉 WSIS 의제에 대한 ILO의 제안

-
- 사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교육과 지속적인 훈련 방안의 강화
 - 노동력의 유연성과 기술 숙련을 촉진하는 전략 채택
 - 사회 보장 · 실업 구제 정책(unemployment policies) · 젊은이를 위한 적절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인턴제도 확립
 - 노동자 · 고용주 · 정부 간 대화의 확대와 심화
 - 중소기업들의 ICT 접근 용이화, 노하우 학습, 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다수의 협력 아래 지속가능한 기업발전서비스의 실행
 - 업무의 세부계획, 재정, 체계를 증진시키는 포괄적인 기반시설투자 정책들의 재검토
 - 고용과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증 및 품질통제 구조들의 개발 및 발전
 - 중재 및 계약의 엄격한 집행 강화, 안전한 의사소통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도구들의 채택
 - 극빈층의 물, 에너지, 보건, 농업, 생명-다양성(WEHAB 우선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ICT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니셔티브
 - 보편적인 공개자원소프트웨어의 조율된 교육과 수용
-

3) 기타 국제기구

OECD는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존’을 강조하면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환경과 규제체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ICT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및 조세정책, 소비자보호, 전자정부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래 특정 영역을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보다 전문적인 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ITSO(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s)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불균형적인 배분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편적인 기술 표준을 통한 광대역 설비와 서비스의 개방적인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 접근성, 기술 이전의 증진에서 UN 체계의 중요한 역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차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쌍방향-초고속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브

로드밴드 위성 기반시설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가 WSIS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관심있는 공공·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Consultative Review Committee)의 설립 또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2005년 WSIS에서 위원회가 연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첨부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ICT에 대한 모든 인류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접근권이 인류의 기본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있다. 시민사회들은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단체의 목적과 역량 내에서 ICT의 중요성, 정보사회에 관련되는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다.

WSIS의 초기부터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CRIS 중심의 시민사회 움직임은 정보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회 관련 시민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규합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 개인과 공동체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삶의 강화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투명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참여가 자유로우며, 사회·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남녀평등과 문화·지역적 균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WSIS 속에서 이러한 정보사회의 비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WSI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첫 번째 준비회의에서 아시아의 민간부문을 대표한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인프라와 법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유럽을 대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은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질 이유가 없고 업계에서는 이미 정보화를 위한 CEO 현장을 마련한 바 있음을 밝혔다. 그 외 미국을 대표한 국제여성단체는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없이는 ICT 발전이 의미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시민사회들도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기반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통신업체, 우편, 금융, 광고, 그래픽 아트, 방송, 기타 관련 영역의 노동조합들을

총괄하는 글로벌 연합인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는 WSIS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4가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원칙에 대한 절대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WSIS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자원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 및 이윤 조직, 공동체, 고용자, 국내 소비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UNI는 2차 PrepCom의 결과에 몇 가지 주제 영역을 덧붙일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발도상국에서 일고 있는 민영화, 탈규제화의 아시아 지역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반시설 구축에 존재하는 경쟁과 ICT 서비스 간의 갈등, 기반시설과 ICT 서비스의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갈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격차 이슈가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직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ICT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업, 재교육의 필요성, 영속적인 직업과 종일근무의 임시직으로의 수렴이 세부 이슈가 될 것이다.

넷째, 적정 가격의 동등한 접근·인권·개인정보보호와 검열·ILO 현장·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근무 환경 및 임금·노조 결정의 자유·건강과 안정과 같은 인간관련 이슈가 의제영역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투자 손실 및 자금 지출 감소와 관련하는 이슈들이 논의되어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문서보관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인 ICA(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ives)는 ICT를 통한 인류 발전(기술증진, 정보공유,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전달 등)에 있어서 지식기록과 축적의 중요성 강조하고 WSIS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환경 보존과 보호를 주요 활동을 삼고 있는 SCOPE(Society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은 ICT가 정보사회의 주요 핵심 요소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정보화 및 WSIS에서의 시민사회 및 NGOs 역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오염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고려가 WSIS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정보 공유 및 소유와 협력 이슈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계의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보에 대한 공동 소유를 확대하는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의 사적 소유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권리자 이외의 정보 사용자의 권리 확대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이슈,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는 정보의 전자적 자유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해 정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유용한 정보의 선택 및 결정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핵심의제로 제안한다.

솔로몬 군도 지역의 시민단체인 지역개발 자원봉사협회(Rural Development Volunteers Association)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슈들의 중요성과 현재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이메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역할을 밝히고 있다. 도서 지역의 연결성을 증진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발전을 위하여 ICT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정보를 창출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와 인류 발전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FCHD(Forum for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는 ICT가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의사표현을 보다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WSIS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ICT에 기반하는 인권 협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ICT 기반의 인권회의(Human Rights Convention) 개최를 제의하였다.

WSIS 참여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인 Open WSIS Initiativ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첫 회의를 통하여 2003년 제네바 정상회의 내에서 WSIS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사업을 지속해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NGO 포럼과 같이 행사가 아니라 전시회 개최, 세미나 및 라운드테이블,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여 무역 박람회처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시민사회들 외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WSIS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별 국가 정부 외에 가장 활발한 WSIS 참여자로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의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의제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가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시민사회들은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통신사회를 형성시키는 발전은 사회, 정치, 경제정의의 원칙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민주주의 옹호, 성평등, 참여와 시민권리획득의 목적을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를 위해 대체로 시민사회들은 인권중심과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커뮤니케이션 권리, 지구촌 정보공유,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문화, 언어적 다양성 증진, 젠더(Gender) 전망 구체화, 청년 전망 구체화,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을 핵심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WSIS 주제의 포괄적인 구조로서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다음과 같은 범주와 이슈들을 제안한다.

첫 번째 범주는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구조건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인간과 사회발전의 기회에 대한 기여, 정보통신사회 격차 해소, 지식사회 구현이 이에 속한다. 더불어 사람, 공동체, 그리고 권리가 고려될 것과 젠더 전망, 청년 전망이 주요 이슈로 포함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구조발전이다. 제도적 구조, 공공정책(Public Policies), 권리·책임·통치가 주요 이슈이다.

세 번째 범주는 인프라구조 건설이다. 도구·서비스·응용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 범주는 환경적 책무이다.

시민사회는 WSIS의 논의 초기부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문제를 정보사회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시민사회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인간의 권리 차원으로 부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사회에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 이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이것이 권리 차원에서 인정될 때 정보사회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구조나 논의구조에 일반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체들의 제안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개혁 및 정보공유 확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재로서의 정보 개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선진국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이 무역규제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지적재산권이 본래 저작권자의 권한과 이용자의 문화향수권이나 정보 접근권과의 균형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허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을 위한 권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적인 자산으로서가 아닌 공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영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저작권의 지나친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환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의 생산과 지역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및 제도·규범 틀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인정하고 재래식 매체와 새로운 정보통신네트워크와의 병행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 인간의 삶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지 주민들의 현실적 삶과 괴리된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사회가 강력히 주장하였던 표현의 자유,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한 집

단들의 참여보장 문제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공감을 얻어 비교적 쉽게 WSIS의 의제로 인정되었다. 또한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문제의 경우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고유의 문화적 역사가 깊은 많은 국가들, 즉 개발도상국 및 유럽 지역 국가들과 UNESCO 등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WSIS의 중요의제로 선택되었다.

3. 민간 기업 부문

WSIS에 주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현재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아직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 그룹별로 ITU의 영역회원들을 중심으로 공식 회의에 대한 기고문을 제출하고 있다. 대체로 민간부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WSIS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CCBI (Coordination Committee of Business Interlocutors)는 정보사회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공공정책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와 논의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기술과 다른 요소들의 속도와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고, WSIS의 진행과정과 절차가 유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개별 국가들에 맞는 정책들과 시간계획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글로벌 정보사회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향한 실현가능한 과정과 의미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발전을 통한 시장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기국들 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보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CCBI는 WSIS를 통해 다음의 6가지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ICT에 대한 고려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추진 정책 목표로서의 경쟁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새로운 ICT의 초기 수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활동을 위한 발전 계획과 측정도구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사회 유용성에 대한 공통적 인식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CCBI는 민간부문은 ICT의 개발, 분배, 운용,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인적·기술 자원 투자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한 현실적 의견, 요구사항 및 장애물들에 대한 의견을 WSIS에 제시함으로써 WSIS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은 실질적으로 ICT를 활용하고, 투자를 통해 대량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로 WSIS에 중요한 행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으로 돌아간 접근을 요청하며, 공공 통신인프라시설이 개발·발전되기 위하여서는 투자촉진적인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ICT 투자와 국가의 경제성장 사이의 강한 연계성에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 절실히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CCBI 외에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민간부문들은 기존의 방송사업자 단체들이다. 이들은 ICT가 기존 방송 매체의 대안이 아니라,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ICT를 통해 확장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방송은 질 좋은 정보의 제공,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ICT를 활용한 방송을 통해 증진될 것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방송 매체는 발전을 증진시키고 사회적·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방송 매체들은 ICT를 통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언어와 문화 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정보사회 내 기존 방송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정보사회 내 매체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기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추구 주장과 유사하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 이슈로 들고 있다. 현재의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ICT 매체에 대하여 통제 불가능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점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을 위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WSIS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경

영 주체들은 정보격차 이니셔티브에 대한 좌절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WSIS에 대한 참여가 기업의 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을 희박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듯하다. WSIS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 서라기보다, WSIS 참여를 통해 정부 관료에 로비를 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경영에 도움이 되는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지역별 준비회의

의제에 대한 지역적 편차는 다수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편차와 유사하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지역별 준비회의를 통해 세계의 각 지역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적 요구가 반영된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아프리카 지역준비회의

아프리카 지역준비회의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이 모든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최빈국들의 이해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우선 순위를 인프라구축, 국가정보화전략, 응용서비스 개발, 지역컨텐츠구축, 전자정부, 정보화영향평가에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인프라 구축, 인력 및 조직적 역량의 형성, 재정지원 메카니즘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회의의 결과물의 주요 특징은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언어적 특수성을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 행동 계획의 실행을 언급하고 있는 점과 지방의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회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지역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지역적 필요성 고려의 절실함을 성명서에 반영하였다.

〈표 3-6〉 WSIS 의제에 대한 아프리카지역의 제안

-
- 공공 접근점의 설치 및 아프리카 백본 구축
 - 특히 농촌 지역에서 저렴하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적·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의 진흥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아프리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과 부합에 대한 논의
 - 혁신적이고 아프리카 친화적인 솔루션을 통해, 특히 농촌과 오지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구축
 - 2005년 튀니스의 2차 WSIS까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부과한 관세 제거 촉구
 - 공공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 위원회 구성
 - 각 국가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 촉구
 - 특히 농촌 지역과 여성 참정권 미보장 지역에서, 여성의 요구를 담아내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서 성적 균형을 보장
 -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선진국 지방자치체들의 경험 및 지방차원의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 지방 당국들과의 공유
-

나. 범유럽지역 준비회의

유럽지역은 부카레스트 성명서(the Bucharest Declaration)를 통해 WSIS의 기본 원칙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하여 유럽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부카레스트 성명서에서 유럽지역은 정보사회의 핵심 비전으로 정보사회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채택하였다. 정보화 사회는 모든 인류가 차별을 겪지 않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다양한 미디어와 장벽 없는 여러 방법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민주주의, 투명성, 책임성,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기존 매체들의 조화로운 결합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들은 정보격차와 같은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정

부, 민간 기업 부문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보공유가 있을 때 정보사회의 혜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범유럽지역회의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e-전략’을 위하여 몇 가지 일곱가지의 원칙들을 결정하였다.

〈표 3-7〉 e-전략을 위한 원칙

-
-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보장
 - 적절한 가격의 보편적 접근 증진
 -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 증진
 -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간 능력 배양
 - 규제적·정책적 틀과 같은 환경 조성
 - ICT 활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보안성 확보
 - 정보사회에 대한 글로벌 이슈들을 환기시킴으로써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 협력의 장 형성
-

정부에게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e-전략(e-strategies)’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는 기반시설, 콘텐츠 및 기술 활용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가 ‘e-전략’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특정 요구사항들에 적응하여야 하며, 국가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의 단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 전략들은 질적, 양적 기준들에 기반한 활동들을 감독할 기본 틀, 중요 요인들 및 메카니즘을 포함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위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e-전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전자정부이다.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로, 경쟁성과 우수한 직업 창출을 세부 이슈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전자사회(E-Society)이다. 확대된 지역 콘텐츠와 활용을 언급하고 있

다. 네 번째는 전자학습 및 전자교육이다. ICT를 통한 인류능력 확장을 다룬다.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준비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본 회의를 통하여 정보사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ICT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통해 모든 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WSIS가 UN의 밀레니엄 선언의 발전 목표 달성 맥락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에 동의하였다. 정보사회는 적절한 가격으로 접근이 용이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하고,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모든 참가자들은 동의하였다. 기술 혁신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GNP를 증가시켜 지속적인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ICT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화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분배를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매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간능력배양 및 인적자원개발에 ICT 활용을 증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ICT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역내 국가들의 협력 정신의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8가지 분야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분야는 기반시설 구축 및 개발이다. 두 번째는 ICT에 대한 적정가격의 보편적 접근 보장이며, 세 번째는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존과 지역 콘텐츠 개발이다. 인력자원 개발이 네 번째 분야이며, 다섯 번째 분야는 법적·제도적·정책적 프레임워크의 구축이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적재산권과 공적 이익 사이의 확보이다. ICT의 보안 보장과 파트너십 강화 및 자원 동원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분야이다.

더불어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적, 지역적 발전 전략 내에서 전통적 모델

들을 존중하며 ICT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학습, 전자보건(e-health), 공동체 정보통신 센터(Commun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er)가 그 세부 제안 내용으로 유럽지역이나 개별 국가들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도서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보건(e-health) 항목을 추가, 강조한 점이다.

논의과정과 동경선언에서 보여지듯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독자적 정체성이 강하고, 발전단계가 상이하며, 정보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름을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 맞는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준비회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준비 장관회의의 참가자들은 ECLAC(유엔 라틴-카리브해 지역경제위원회)의 협력으로 WSIS에 기여할 바바로 선언문을 제출하였다. 더불어 ITU, 타 유엔 전문기구, ECLAC에 역내 발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8〉 바바로 선언문 中 기본 원칙

-
- 역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의 가장 중심적 목표임
 - 정보사회는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제거하고, 새로운 배타성을 방지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부여하여야 함
 - 정보사회는 빈곤타파, 부의 창출, 사회발전의 촉진과 강화, 민주적 참여,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 등 공익과 사회복지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ICT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권을 확보하며,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사용을 보장하도록 법제도가 항상 지지해야 함
-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강화할 것을 우선적인 이슈로 제안하였다. 주요 참가주체들로 하여금 국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더구나 활동의 역할, 책임,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프로그램 중에 밀접한

협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NGO,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가 이니셔티브의 지속성과 과정에 충분히 기여하도록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자스펙트럼의 관리가 공익에 맞게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파수 관리에 대한 국제 협의, 국가의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채택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경쟁, 품질, 다양성, 최신기술의 조건하에서 터미널 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소프트웨어시장에 접근하도록 책임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정보네트워크간 연결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접속비용을 줄이는 지역 트래픽 허브의 신설과 접속망의 광대역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국가 발전 맥락 내에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ECLAC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12월 13일자로 ‘역내 정보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지역회의에서 발표하여 지역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보사회로의 이전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수평적 측면에서 ICT의 접속, 정보격차, ICT 수렴의 의의, 포괄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대각선 측면에서는 장애 제거와 이전의 가속화, 규제프레임워크, 재정, 인적자원을 언급하고, 수직적 차원에서는 디지털화 과정, 발전을 위한 ICT,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범지역주의, 디지털화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역시 지역적 콘텐츠 및 글로벌 자원의 지역적 활용의 증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지역의 특징은 지적재산권과의 연관 속에서 지역적 활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현대화 같은 공적 영역 시행의 발전을 언급하였고, 보건 영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본 지역의 특성은 지역 국가 내 멀티미디어 영역의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 협상력 증가를 위하여 지역 통합과 정보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역적-하위지역적 작업반 설치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 보존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점도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마. 서아시아 지역준비회의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본 회의를 통해 글로벌 정보사회 내 서아시아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고 WSIS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ICT 정책, 기반시설, 활용과 서비스에 대한 검토 시 정보사회 내 서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국가 및 지역의 필요 사항·우선 순위·핵심 이슈들을 밝혀 내며, 정보사회에 대한 지역 국가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지식기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비전·전략·계획 마련이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흐름과 걸맞게 서아시아지역 내 정보사회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증진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ICT 활용 확대·고용 증진 등을 위한 회원국들의 ICT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ICT 기반시설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의 마련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국가들의 WSIS 참여 양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WSIS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아시아 지역회의의 주요의제는 기존에 다른 지역 및 준비단계에서 논의되는 의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편적 접근과 ICT 혜택의 분배를 위한 정보사회의 기반 시설 발전, 특히 고용을 촉진하고 빈곤퇴치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 인적 자원 개발·교육·훈련·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는 역량 강화, 전자정부·전자보건·전자정부·전자상거래·전자비즈니스와 같은 ICT의 활용,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디지털 경제를 위한 규범틀, WTO·ITU·WIPO와 같은 국제적 규범과 합의), 지역적·국제적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수혜하는 가운데 정보사회 프로젝트의 시작 및 실행과 재정마련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지식기반사회에서 아랍어 기반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적 정체성,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바. 비스켓 · 모스크바 부속지역회의

정보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본 회의는 정보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 지방 및 도시 인구집단,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수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였다. 기부된 자원들에 집중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행위자들에 대한 시장 접근을 포함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텔레콤 부문의 발전상황과 맞지 않은 현존하는 규제들이 정보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ICT 시장에 대한 개방적 통계 정보들의 제한적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역적으로 ICT 영역의 우수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정보사회는 인류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서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였다. 정보사회에서 기술은 사회 · 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민간기업부문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ICT 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역내 국가들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ICT 활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지역 협력 등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며, 참여 국가들의 국가적 ICT 전략들의 형성과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3 절 WSIS 의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

의제에 대한 논의의 진행과정은 정보사회가 인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특성에 기반하여 점차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SIS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심이 되어 온 공통인식이 존재한다. 정보사회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제까지의 국제적 협력과정과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모든 참여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현안문제들이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면과 연관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단순한 결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익 추구 혹은 경제적 실리라는 이유로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이며,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의사결정자였던 정부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민영화와 시장개방, 관련 기술의 세분화·전문화 등으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화 특성 상 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민간 부분의 영향력과 그들 역할의 중요성, 최종 소비자들의 증대되는 역할과 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보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중국 및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 중심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고문 및 지역 준비회의 결과물을 살펴 보건대 대체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정보사회 문제 해결에 중심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WSIS의 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보여지는 갈등 구조는 크게 정보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국가 정부 대 시민사회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제안하는 주제 및 이슈의 차이는 국가 발달 단계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정보화가 현실의 일부가 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보사회와 연관되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등의 이슈, ICT의 활성화 등 ICT 기반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슈에 대한 논의와 같은 포괄적인 주제 영역들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강화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미국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정보화가 여전히 미래의 일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ICT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지원

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은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기술 이전과 정보의 공유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에 주목하며, 개도국 및 최빈국들은 현재의 국제 협력 체계 및 정보통신 관련 규범 논의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정부는 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물질적 기반 확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 정책 및 전략의 개발, 인적 자원 등 발전 중심적인 이슈들이 다수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와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증대 등 시민사회들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의제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논의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및 유럽지역의 국가들의 경우가 가장 정보사회의 사회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들은 대체로 인권적 측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적 콘텐츠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 콘텐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정보격차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시민사회는 공개소스소프트웨어를 정보격차 해소 및 지적재산권 남용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중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들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검열과 감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제 논의 과정에서 입장 정립이 매우 힘든 위치에 처해있다. WSIS의 주제로 언급되는 의제들을 살펴보면, 의제별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입지의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WSIS의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 국내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영역들이며, 몇몇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국내적 정보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글로벌 정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국가전략으로 연계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WSIS는 한국의 정보화를 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국가전략을 도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WSIS 대응방안의 모색

제 1 절 국내의 WSIS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

앞서 WSIS의 개요와 준비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SIS에서는 참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있어 현안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차 WSIS는 우리나라의 정상이 정보통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처음 참여하는 장이 될 것이며, 그동안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쌓아올린 정보화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기할 이슈, 찬반의 입장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간 관계기관간의 협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WSIS 개최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성·운영해왔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국제관계가 경쟁과 협력이 좀더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국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WSIS 관련 국내의 노력은 크게 실무준비반의 활동과 정책연구네트워크의 형성 및 국민포럼의 개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책연구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WSIS 웹사이트 구축, 의제분석위원회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WSIS 실무준비반의 활동

2002년에 WSIS 관련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WSIS 관련 회의 참석, 개괄적인 의제 분석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실무준비반의 활동의 주목되는 바는 새 정권이 출범한 후 첫 번째 공식적인 정상회담인 WSIS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세계 각 지역회의의

에서도 국가전략과 역내 공동전략에 대한 모색을 수행하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도 이에 글로벌 국가전략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실무준비반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무준비반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대외적으로 1차 PrepCom이 2002년 7월 개최된 이후 정부 및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이 국제회의에 참석, 국내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여론 및 분위기를 익히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스위스 상주 ITU 파견담당자도 제네바에서 열리는 비공식회의 및 ITU 전권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내에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등 국제동향 파악에도 노력해왔으며, 2003년 1월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도 한국 측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차원의 의제 건의, 기고문 제출 등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한편 국내차원에서는 1차 WSIS에서 달성하거나 취해야 할 우리나라의 목표수준과 국가전략을 탐색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글로벌 정보사회에서의 IT 국제협력, 글로벌정보격차 해소활동의 쟁점과 전망, 남북 IT 교류협력 문제, 동아시아 다자외교, 디지털외교에서의 민간참여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영역의 선정과 문제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국내의 시민단체에서도 WSIS 개최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의 행사에서 WSIS 진행상황을 안내하거나 시민단체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향후 실무준비반은 지금까지 활동해온 바와 같이 WSIS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공식적인 우리나라 대표로서 활동해야 하며, 국내에 WSIS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무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연구네트워크의 형성

WSIS 의제연구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웹사이트 구축, 의제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취하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WSIS 준비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인터넷 상에 웹사이트(<http://www.wsiskorea.net>)를 개설하여 정보사회 정상회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이버상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민간기업, 전문가 그룹이 독자적인 준비활동을 벌이면서도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WSIS 관련 주요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네트워크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오프라인상의 준비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지역회의, PrepCom 등 국내외 WSIS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WSIS에 대한 UNESCO, ITU, UN 등 국제기구, 외국의 시민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국내 관련 전문가간의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민간부문의 요구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내 각 민간부문들은 기고문 제출 등을 비롯하여 WSIS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WSIS 의제분석위원회의 운영

WSIS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의제연구를 진행하는 의제분석위원회가 활동해야 한다.

위원회는 크게 의제별분과와 운영분과위원회의로 구성해야 한다.

의제별 분과위원회는 정보인프라, 정보보호 등 WSIS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에 따라 6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의제별 분과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별로 분과장과 분과간사를 지정하여 책임연구를 진행하고, 분과위원은 전문성, 연구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

운영분과위원회는 총괄적인 의제연구, 사무국 기능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정부안 수립, WSIS 관련 정보제공, 전체회의 운영, 포럼 준비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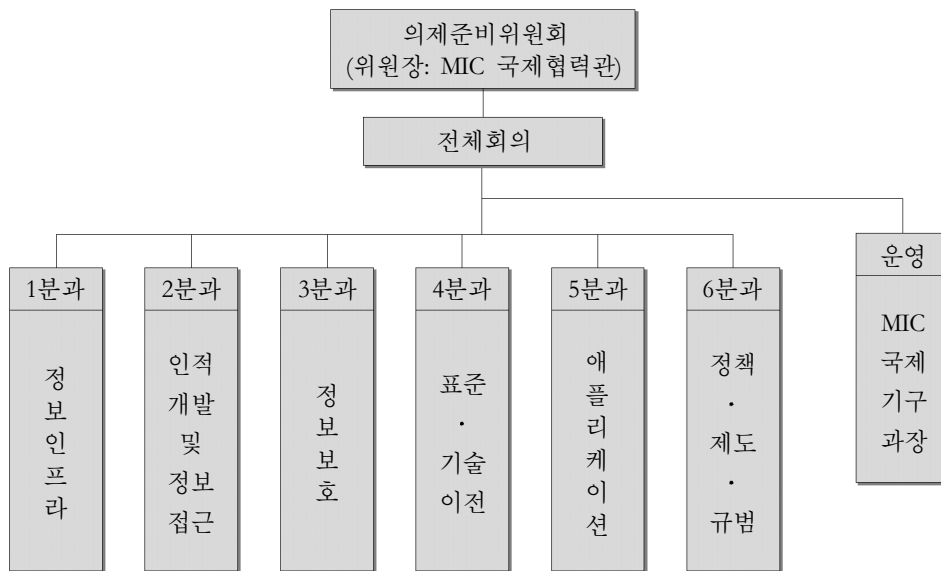
첫째, 정부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의제 분과별로 정보통신부 정책담당자가 자문역할을 하며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분과연구시

필요하다면 타부처 관계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제별 분과운영이 효율적이다. 분과장이 자율적으로 분과연구를 진행하되, 정보통신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연구조정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연구조정회의는 최소한 월1회 이상 개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분과 활동 및 전체회의 개최로 운영한다. 운영분과는 현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제분석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분과장, 분과간사 및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분과별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그림 4-1) 의제분석위원회 구성도(안)



의제분석 분과위원회 연구방향은 크게 기초연구와 연구결과물 작성으로 나뉜다. 기초연구 차원에서 <표 4-1>과 같이 각 분과별로 최근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정보통신발전방향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국제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각 지역회의·나라별·기관별 기고문, 선언문 및 행동계획 기초안(2차 PrepCom 산출물)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4-1〉 의제별 분과 연구대상(예시)

분과별	연구 내용
제1분과 정보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네트워크 발전방향 - Asia Broadband Network - Network 관련 신기술의 발전(IPv6, 위성인터넷 등) - 정보인프라의 상호운용성 증진 등 - 통신·방송 융합의 발전방향 - 인터넷 요금체계 개선
제2분과 인적개발·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지역접근센터 구축 - 정보화에 대한 인식고양 프로그램 - 성차별(Gender) 이슈 - 언어 및 문화의 다양성 -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접근
제3분과 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보호 - 사이버 보안 문화 - 통신망 보호 -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 바이러스
제4분과 표준·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과 지역균형발전 - 기술교류 및 협력 - 아태지역 역내 표준화 - 호환 표준의 정립 - 개도국 정보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이전
제5분과 애플리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e-government) - 전자상거래(e-commerce) - 전자보건(e-health) - 전자학습(e-learning) - 전자공동체(e-community) - 기타 분야별 정보화
제6분과 정책·제도·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에 적합한 법제체계 - 모범적 가버넌스 정립(정책투명성, 민간참여확대 등) - 분쟁조정방안(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지적재산권 - 윤리적·규범적 이슈(표현의 자유, 소비자 보호)

연구결과물은 다음 세가지 방향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한다. 다시 말해 각 제안서, 기고문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과 개도국, 각국간 의견 대립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IT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보화 비전 등 주내용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제안사항 중 하나로서 WSIS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반영할 우리나라의 기고문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제안사항 두 번째 항목으로서 대통령 제안사업의 구체화작업이라는 점이다. 제안사업의 개념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우리나라 단독제안으로 할 것인지 역내 국가와의 공동제안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WSIS 국민포럼의 개최

민간부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거 참여하는 WSIS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WSIS 웹사이트와 의제분석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를 국민포럼 형식으로 개최하여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한국포럼(Korea Forum)을 개최해야 하며, 이를 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의제분석 분과위원회의 온라인/오프라인 연구결과와 운영사항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UNESCO 한국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의견수렴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럼준비위원회는 전문가 델파이 기법 및 소규모 정기포럼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 포럼을 준비하고, 의제분석위원회 중 운영분과팀과의 적절한 협의과정을 통해 행사 규모, 참석대상자, 개최시기 등을 결정하고, 각 의제분과별 연구결과가 고루 발표되어 효과적인 포럼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포럼을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포럼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과 행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종 의견수렴결과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WSIS의 주요쟁점과 한국의 위상설정 및 한국적 의제발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준비회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WSIS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은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6개의 의제 범주를 기반으로 의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 확보(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정보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와 콘텐츠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정보격차 해소의 핵심적 쟁점이자 정보사회의 기본이다. 이에 정보통신 인프라와 콘텐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협력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WSIS 준비과정에서도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의 확보는 참여자들은 전폭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시적 고찰이 필요하다. 물질적 인프라의 구축 지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계획 및 교육 사업 등과 같은 물질적 기반 확충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WSIS는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정보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정보사회의 다양한 주제 영역을 다루게 됨으로써 국제적 인프라 확충을 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의 전세계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기반시설 구축의 주체와 재정 마련에 대한 부분이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은 국제사회의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협력,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최대한 지원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인프라 확충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IT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 최고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한국은

지난 9월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최고의 브로드밴드 국가가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무선 LAN·제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선진적인 발전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T산업의 GDP 비중이 1997년 8.6%에서 2001년 12.9%로 증가한 것도 한국의 정보화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에 대하여 OECD, ITU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등 해외언론들은 한국을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정보화 전략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국적 기반시설의 보급과 정보화 전략의 전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적자원개발 및 접근권 확대(Gender, Disability, Youth)

ICT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또한 WSIS의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ICT를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없이는 정보화사회 구현 및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교육(education), 훈련(training)을 수행하기 위한 전 세계의 협력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ICT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형성이 요구된다. 전문가 교육이 더불어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접근권의 확대는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ICT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정보사회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인력양성의 문제는 UN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문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기타 국제기구 및 국가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WSIS의 움직임이 갖는 특징은 ICT의 최종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ICT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국제

적 동의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조직들의 지역사무소 및 지역접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역 접근센터의 구축과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특히 모든 인류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위하여 정보통신 영역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완벽하다고 해서 정보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술과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향유하고 활용할 때에만 진정한 정보사회가 이룩된다. 지금까지 다수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 전문가 육성에 집중되었다. 정보화 혜택의 평등한 배분 및 진정한 정보사회의 이룩을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WSIS 의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은 전문가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측면에서 이미 다수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해외진출 전략국가 IT인력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APT(아태 전기통신협의회) 개도국 등 해외 진출 전략 국가 59개 나라의 IT 정책결정자와 업체 관계자 705명을 초청하여, 정보화 과정 연수 및 현장 방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구성하여 20개 나라에 175명의 IT전문가를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는 세계은행 DGF(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와 협력하고 DGF-KTC를 개원하여 아시아 지역의 인력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한 한국적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추구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와 환경)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은 비교적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슈로, WSIS의 준비과정이 진척되어감에 따라 추가된 의제 영역이다. 정보의 축적 및 사용에 대한 의존성과 인터넷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한 통신에 대한 의존성이 날로

증가함에 기인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 내에서의 보안사고는 전 세계 곳곳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확산속도가 빠르고, 파생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은 개별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 없이는 보안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없다.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은 유용성, 비밀보장성,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용성(availability)은 요구되는 방법에 따라 적정시기에 접근가능하고 사용가능한 정보, 데이터 및 통신 네트워크의 특성을 의미한다. 비밀보장성(confidentiality)은 승인받은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승인을 받은 독립적인 존재, 승인 받은 과정 상에서만 공개되는 정보, 데이터 및 통신 네트워크 특성이다. 무결성(integrity)은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와 데이터 및 통신 네트워크의 특성 및 정확성과 완벽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기술의 발달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는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공개된 상태이며, 모든 이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정보의 축적 및 사용에 대한 의존성과 인터넷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한 통신에 대한 의존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및 통신에 대한 보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는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및 복잡한 통신 기기와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만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뿐만 아니라 그의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대응이 요구된다. 적절한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실행을 위한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신분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넷 등 다양한 수준 별 보안 정책의 시행과 강화가 필요하다.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감독과 보안의 유지가 필요하다.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 보안에서 보안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안 위협이 커진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WSIS 준비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이슈로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을 다수의 참여자들이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화가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영역의 발달은 미비한 편이다. 근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는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기술이전 및 표준화

기술이전과 표준화는 현재까지 WSIS 주제 관련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이다. 개별 국가 및 기타 참여자들의 기고문들에서 간헐적으로 제안되었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들, 시민사회, 국제기들이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선진국들을 조심스러운 접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화는 접근성의 확대 및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국제적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현재 국제적 표준의 흐름은 시장 중심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우세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세한 기술이 표준이 됨에 따라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익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다. 현실적으로 표준을 제안한 국가 및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선불리 시장표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정보통신관련 시장 표준이 정해지는 국제적 조직으로는 IETF, W3C, ICANN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전파 및 통신 기술을 다루던 국제 기구들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의 중심의 표준이 성립되기도 한다. 이 경우 한 국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ISO, IEC, JTC-1, ITU-T가 이러한 기구들에 속한다.

선진국들은 표준 개발을 행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표준을 개발하여 기술 및 관

런 제품 수출, 저작권사용료 수입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시장표준이 우세한 현 상황의 유지 및 경쟁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표준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표준설정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 표준 설정과정에서는 국가 크기 별로 차이도 존재한다. 국가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기술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이에 따른 표준 개발 및 수용의 차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표준의 개발과 수용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상태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기술 흐름을 파악한 뒤 유용한 기술을 수용하여 제품화하고 이를 대량 판매하여 실수입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표준 개발을 통하여 IPR 수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템 별로 시장경쟁 표준화 혹은 국제 기구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국제적 기구(de jure standard)를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5. 응용 및 콘텐츠 관련 이슈

ICT의 응용에 대한 강조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보여진다.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보건(e-health), 전자비즈니스(e-business), 전자학습(e-learning)이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분야는 ICT가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적, 시각적 제약을 벗어나 실질적인 ICT 혜택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방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WSIS에서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참여국가, 민간부문, 시민단체들의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화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CT가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보화사회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방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보화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ICT가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보화사회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방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와 매우 우수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영미권의 콘텐츠가 우세한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유지할 때 진정한 정보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한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글 키워드 서비스 및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한국의 성공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정보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정책·제도·규범의 정비

정보사회 형성을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SIS에서는 정보사회의 정책과 제도, 규범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적 기반시설의 구축만으로는 정보사회 구현이 어려운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정보화 마인드 및 국가전략 등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영역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이다. 정보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의 창출, 글로벌 정보사회의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지역적·국가적인 법·규제·정책의 정비 및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다수의 참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현재까지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방성 및 정책의 투명성 유지, 국제적 신뢰와 확신의 형성 등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삼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증진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규범과 국내 사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장이 국제적으로 공고히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시민사회들은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평등한 접근의 보장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위하여 정보공유운동(copy-left) 또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운동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윤리적·규범적 이슈들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제도·규범 정비의 방향 모색, 정보사회의 윤리 정립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을 만들어내었다.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 생활 양식이 창출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윤리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윤리적·규범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정보화 확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지역적, 국가적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 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물질적 기반을 운용할 수 있고, 정보화를 촉진할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경우 선진국의 정보화 전략과 경험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원천기술 및 법·제도적 측면 그리고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발전이 필요한 국제적으로 정보화 중진국으로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처해있다. 한국은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할 때이다. 한국이 단순한 'IT인프라의 선진국'에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선도국'이 될 수 있으려면,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영역을 넘어서는 정보화의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03년 2월 수립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였다. 튼튼한 정보화 기반의 지식강국,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국민모두가 정보화를 누리는 복지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10대 공약을 수립하였다. 인프라와 IT 인력의 중요성, IT 발전과 경제적 성장과의 연계, 정보화 혜택의 평등한 분배, 정보화를 통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 국제적 위상의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WSIS의 주제들로 언급되는 이슈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WSIS 준비작업의 방향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WSIS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준비회의 및 비공식회의 등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 밀접한 의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보사회의 제반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국 입장을 감안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WSIS 준비회의에 함께 참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보격차 및 제반 정보화의제와 관련한 국가전략의 재편 노력의 필요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정보수집과 안건 및 의제 분석 등의 기본적인 연구결과가 정리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시민사회의 큰 관심으로 인하여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보화 부문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일차적으로 WSIS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가 마련된다는 데 있다. 또한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3년 12월로 예정된 WSIS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준비작업의 진행을 위해서 새 정부는 1) WSIS 실무반 운영 및 WSIS웹사이트의 구축, 2) WSIS의제의 체계적 연구, 3)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기반의 마련 등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통상적인 실무반의 PrepCom 및 정상회의 참여 준비와 더불어 WSIS 웹사이

트의 구축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준비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WSIS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WSIS 준비활동을 총괄하는 웹사이트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 분야 준비활동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민간기업, 전문가 그룹이 독자적인 WSIS 준비활동을 벌이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WSIS 및 정보사회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WSIS에 대한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화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역으로 국제사회의 피드백을 받는 사이버교류의 장으로서 WSIS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WSIS 준비를 위한 웹사이트의 구축 및 활용을 계기로 하여 디지털시대의 사이버외교를 추진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둘째, WSIS 의제의 심층적 연구 및 한국의 위상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세계 모든 지역 및 여러 주체들이 WSIS 준비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WSIS 준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제들을 분석하여 국가별, 지역별, 국가군별, 국제기구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논의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슈별, 지역별, 국제기구별로 WSIS의 준비동향을 파악할, 학계, 연구소 및 민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가칭)WSIS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화 맥락에 적실성이 있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WSIS는 정부만의 회의가 아니며 시민단체, 업체 및 학계 등 국내 민간부문이 이미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포럼을 통해 정보사회와 WSIS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럼의 결과물이 WSIS 의제 설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사회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국내 시민사회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WSIS의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디

지텔 외교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민간 IT 관련 기업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WSIS에 대한 국민포럼 등을 계기로 하여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향후 중장기적 추진과제

2003년 WSIS 이후의 2005년 제2차 WSIS 대응전략 및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1) 디지털외교의 인프라의 정비, 2) 디지털외교의 한국적 의제 발굴, 3) 디지털외교의 추진주체 정비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작업을 체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외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주로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정보통신망의 정비나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 등에 글로벌 정보사회로의 지향성을 가미함으로써 한국의 정보화가 대외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이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02년 10월에 개통된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에서 디지털외교와 관련된 부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외교통상부가 130여 개의 재외공관을 네트워크화하는 광역외교망인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의 구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는 외교통상부의 개별 부처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자체도 통합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정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조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소위 사이버외교(cyber diplomacy)의 자원이 되는 인터넷상의 디지털컨텐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기술표준상의 호환성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글로벌 정보사회의 기준에 맞는 지 본격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 영문 또는 다국어 웹사이트나 소개책자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역설적 현실 하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외교전략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둘째, 정보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정보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T분야는 그 속성상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지털외교의 담당자가 IT이슈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국제협력이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IT 관련 기술·정보·지식 분야의 실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과 국제무대에서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교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의 유기적 네트워크화가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현실은 새로운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현재 산재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는 데에서도 거리가 멀다. 시급히 이러한 전문가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외교에서 한국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충하는 이해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전술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의제를 개발하는 연구작업을 체계적으로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제발굴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해관계를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외교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내차원 중심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외지향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존재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국가 CKO (Chief Knowledge Officer)' 또는 IT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외교의 과제는 지도자 한 사람 또는 어느 특정 부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외교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호흡을 맞출 정부부처간의 공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교전담부처로서의 외교통상부와 IT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및 과학기술부 등의 실무자들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디지털외교를 위한 상설조직을 마련하는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인 버추얼기관(virtual agency)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버추얼기관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디지털외교관(digital diplomat)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외교 전담부처 및 정보통신 실무부처들의 조직개혁과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나 디지털 외교 전략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요컨대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만나는 21세기초의 길목에서 WSIS에 대한 대응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WSIS의 준비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의제와 논점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정보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는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지난 십여 년간 진행해온 국내외 정보화전략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WSIS 대응 전략은 머지 않은 미래에 21세기 세계질서 변동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의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2003년 한 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정보사회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외교의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첫 걸음을 떼어 놓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약어풀이(abc 순)

-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OECD 경제산업자문기구)
Business Council of the United Union(합동조합 경영위원회)
CCBI(Coordination Committee of Business Interlocutors, 경영인조정위원회)
CGBI(Coordinating Group of Business Interlocutors, 경영인 조정단)
CRIS(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CRIS(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통신의 권리)
DOT Force(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 디지털 기회 특별전문위원회)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FCHD(Forum for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문화와 인간 개발을 위한 포럼)
GIIC(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글로벌 정보인프라 위원회)
HLSOC(High-Level Summit Organization Committee, 고위급 정상회의 조직위원회)
ICA(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ives, 아카이브를 위한 국제 위원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TSO(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s,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성기구)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Money Matters Institute(화폐연구소)
NGLS(United Nations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 유엔 비정부연락서비스)
SCOPE(Society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사회)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 ACC(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유엔 행정조정위원회)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 유럽지역경제위원회)

UN ECLAC(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경제위원회)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

UN ESCWA(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 서아시아지역경제위원회)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프로그램)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 네트워크 연맹)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유엔 훈련 조사 연수원)

UNU(United Nations University, 국제연합대학)

USCIB(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 국제경영협의회)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 Alliance, 세계정보통신서비스연맹)

WTDC(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세계전기통신개발컨퍼런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참 고 문 헌

〈국내 참고자료〉

- 세계 IT정상회의 열린다, hackersnews, 2002. 7. 2, http://www.hackersnews.org/data/2002/07/0702_15.html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방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2. 9. 25.

〈국외 참고자료〉

- Background Material, <http://www.itu.int/wsis/background/index.html>
- Bishkek conference on the Information Society Kyrgyzstan 2002, 9–11 September, <http://www.ict.kg/conference/wsis/eng/index.htm>
- CIVIL SOCIETY COORDINATION GROUP Statement to the Informal Meeting on Content & Themes Geneva, 16–18 September 2002, Document WSIS/CSCG/3, 2002. 9. 12, http://www.geneva2003.org/home/documents/doc01/16sept_en.pdf
- Civil Society Secretariat Site: <http://www.geneva2003.org> 2002.07–2003.02
- 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RIS), <http://www.crisinfo.org>
- CRIS 정식 홈페이지, <http://www.crisinfo.org>, 2002.05–2003.02
- Economic Commission of Africa, <http://www.uneca.org>
- GIIC Co-Chairman Naruto Chosen to Oversee Business Involvement in WSIS Asia Regional Conference, <http://www.giic.org/events/12-04-02a.asp>
- GIIC Details Its Views, Messages for Upcoming UN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http://www.giic.org/events/12-04-02.asp>
- GIIC Speaks for Business at Pan-European Information Society Conference,

<http://www.giic.org/events/11-11-02.asp>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http://www.giic.org/events/7-30-02a.asp>

Links: Civil Society Academic Institutions, http://www.itu.int/wsis/links/listing.asp?lang=en&c_type=ac

Links: Civil Society Associations, http://www.itu.int/wsis/links/listing.asp?lang=en&c_type=as

Links: Information Society, http://www.itu.int/wsis/links/listing.asp?lang=en&c_type=is

Links: Private, http://www.itu.int/wsis/links/listing.asp?lang=en&c_type=p

Links: United Nations, http://www.itu.int/wsis/links/listing.asp?lang=en&c_type=un

Preparatory process, <http://www.itu.int/wsis/preparatory/index.html>

PrepCom-01(제1차준비회의), <http://www.itu.int/wsis/preparatory/prepcom/prepcom1.html>,
2002. 07~2003. 02

PrepCom-02(제2차준비회의), <http://www.itu.int/wsis/preparatory/prepcom/prepcom2.html>,
2003. 01~2003. 02

The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WITSA), <http://www.witsa.org/>

UN 주요기구, <http://www.un.org/aboutun/mainbodies.htm>

UNESCO and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portal.unesco.org/ci/ev.php?URL_ID=1543&URL_DO=DO_TOPIC&URL_SECTION=201

UNESCO, http://www.unesco.org/webworld/ict_ngo/ngos.shtml 2002. 07~2003. 02

UNESCO Observatory o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unesco.org/webworld/observatory>

United N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ask Force,

<http://www.unicttaskforce.org/>

WSIS-Basic Information, <http://www.itu.int/wsis/basic/index.html>

WSIS 배경에 관한 기본 문서, <http://www.itu.int/wsis/background/index.html>, 2002. 07
~2003. 03

WSIS Delegates Debate Findings of GIIC Opinion Survey, <http://www.giic.org/events/9-23-02.asp>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회의, <http://www.indotel.org.do/wsis>, 2003. 01 ~2003. 02
- 범유럽지역회의, <http://www.wsis-romania.ro>, 2002.11 ~2003. 02
- 서아시아지역회의, <http://www.escwa.org.lb/wsis>, 2003. 02. 08
-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http://www.wsis-japan.jp>, 2003. 01~2003. 02
- 아프리카 지역회의, <http://www.geneva2003.org/bamako2002/>, 2002. 06~2003. 02
-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한국 시민단체 홈페이지, <http://www.wsis.or.kr>, 2002. 10~2003. 02

● 저 자 소 개 ●

서 보 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상 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 주 성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문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선 희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위원

김 현 주

-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지역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백 지 원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위원

연구보고 03-03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SIS) 대응방안 연구

2003년 2월 일 인쇄

2003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윤 창 번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ISBN 89-8242-258-7 93320
